2016 은평혁신교육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목차

프롤로그 06

마을과 함께하는 서울형혁신교육 06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교육의 혁신을 꿈꾼다 07

은평혁신교육은 [ ]이다 15

진로교육 15
마을 속 즐거운학교 23
네트워크 39
자연치유 57
돌봄 61
마을누림 69
청소년자치 75

우리의 시선 83

돌봄이야기 84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청소년 자치활동' 88
마을 속 교육복지공동체를 통한 학생별 개인성장지원 다각적 지원체계 92
민관학 거버넌스의 힘으로 새로운 교육을 상상하자 97

함께 만든 시간 101

마을과 함께하는 서울형혁신교육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모두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실현하도록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자치구

운영배경

- 학교의 역할 및 사회적 기대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치구 단위 교육예산의 집중투자 및 지원 필요
- 지역 교육인프라의 체계적 조직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 지원 체제 구축
- 지역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 문화지원, 돌봄 등 교육복지 관련 학교 기능 비대화로 지역사회와의 역할 분담 필요

운영비전

Vision	전략 목표
마을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한 공교육 혁신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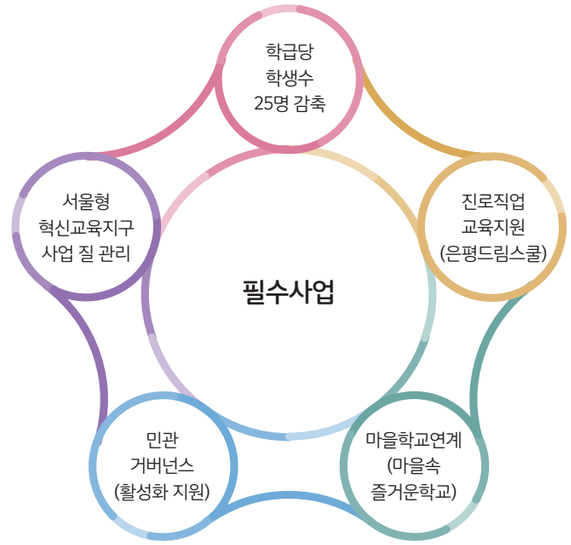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내용

필수과제 모든 혁신교육지구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기초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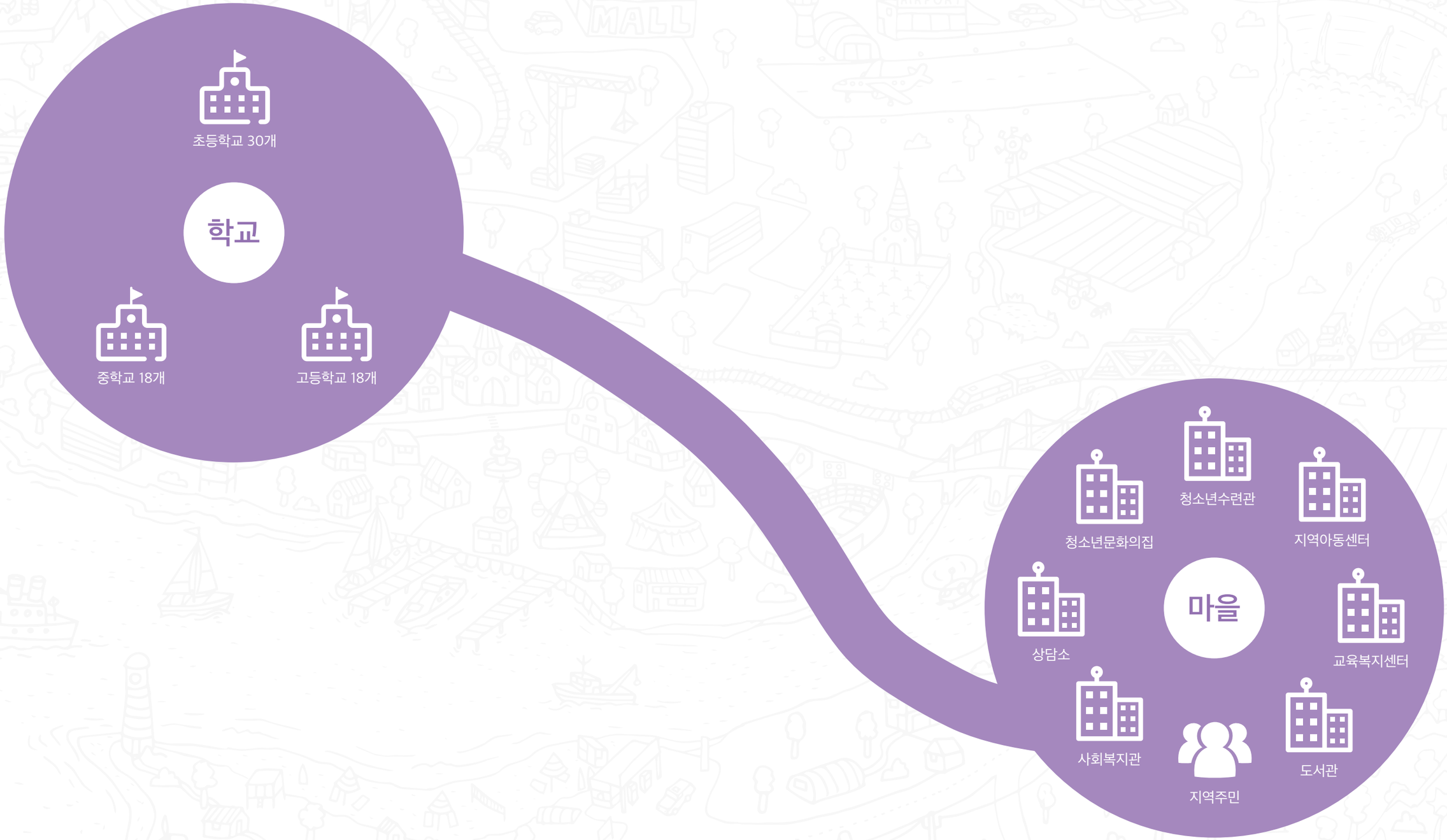
지역특화사업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사업

배움과 돌봄을 통합하는마을 속 즐거운 학교

2016년 은평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마을과 학교의 관계망 복원을 통해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


초등학교 30개
학교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8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상담소
마을
교육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지역주민
도서관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교육의 혁신을 꿈꾼다

이미경 은평혁신교육지원단장

혁신교육을 통한 교육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생과 협력의 글로벌 교육혁신도시 서울선언으로부터 시작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마을과 학교가 만나 아동청소년의 삶을 지원하는 지역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은평구도 '배움과 돌봄을 통합하는 마을'이라는 비전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참여했습니다.
2015~16년 진행된 혁신교육지구사업 1기에는 지역의 청소년기관들의 우수사업을 지역에 확산하여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민·관·학 거버넌스구조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진로, 자치, 돌봄, 위기청소년 지원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의 안정성 등으로 은평구혁신교육지구사업은 '매우 우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되는 2기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배움과 돌봄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마을 교육공동체'라는 비전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주민, 단체,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마을 전체의 빈틈을 찾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자원을 연계하는 학교와 배움의 공간으로서 재해석된 마을이 서로 신뢰하며 상생하는 교육혁신의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민·관·학 거버넌스는 발전단계로 진입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민·관·학이 처음 만났습니다. 마을콘텐츠를 학교와 연계하는 '마을 속 학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거버넌스가 작동되기 시작했지만 민·관·학이 함께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척 낯설었습니다. 2015년, 혁신교육지구 정책협의체를 통한 논의 과정은 사업파트너로 인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학교와 마을이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이지만 거버넌스가 익숙하지도 않았고 지역주민 네트워크는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민간 실행력 강화를 위해 혁신교육지원단을 운영하게 되었고 민간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과 골목놀이터사업으로 주민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민의 참여와 네트워크는 걸음마수준입니다. 2017년에는 학부모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혁신교육지원단 운영을 올해는 교육청지원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의 공동수행을 넘어선 협력체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버넌스는 은평 교육공동체 구축의 토대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지역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공유와 참여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며 나아가 교육공동체 구축의 토대가 되는 사업이므로 잘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부모, 교사, 학생의 참여를 통해 민·관·학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야하며,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환경의 변화로 교육혁신을 이뤄야 합니다. 또한 혁신교육을 통해 민·관·학 협력이 협치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혁신교육의 지속가능은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로 가능합니다.

1.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수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하고자 합니다.
2. 학생, 교사, 학부모가 교육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단위별 조직화 활동을 전개합니다.
   - 다양한 청소년 참여를 통한 혁신교육축제 개최
   - 혁신학교 교사 모임, 마을연계형 교사 모임 지원
   - 권역별 학부모네트워크 구성
3. 자치구 교육도시 선언의 비전 수립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혁신학교 중심으로 교사모임을 진행하고, 마을연계형 교과과정개발 교사모임을 지역과 연계하는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권역별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학부모 조직에 주력할 예정이며 다양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활동의 총합은 혁신교육축제입니다. 혁신교육축제는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발표하고, 혁신교육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업의 참여구조를 만드는 장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서로 교류하여 지역교육공동체 조성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혁신교육의 가치가 교육의 나아갈 방향이라면, 학교/마을/학생/교사/학부모가 자기역할을 함으로써 배움과 돌봄이 잘 이뤄지고 서로가 있어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을이 되는 것이 이 사업의 결과이며 과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혁신교육지구 사업 주체들이 모여 꿈꾸었던 것은 혁신교육의 성공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학교와 마을의 역할 존중을 통한 신뢰감 형성, 다양한 마을주체의 참여와 이를 통해 아이들의 다양한 삶을 인정하는 은평교육이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2017년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로 은평형 교육이 구체화되고 지역 전체로 확산될 것입니다.

은평혁신교육지원단은 민의 성장의 중요성에 의해 제안된 구조

은평혁신교육지원단은 2016년 민·관·학 거버넌스의 한 주체인 민의 성장의 중요성에 의해 제안된 구조입니다. 2016년 혁신교육지원단의 비전은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을과 학교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지원을 네트워크하는 혁신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마을 방과후와 분리하여 혁신교육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민·관·학 거버넌스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지역이 성장하고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혁신교육의 핵심이며, 마을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마을이 학교와 연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마을방과후와 교육콘텐츠 연계는 마을방과후지원센터를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혁신교육지원단은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고 민간의 참여와 실행력으로 민관학거버넌스가 완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평구의 혁신교육지구 진행 과정

(가) 교육콘텐츠 사업과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

◇ 은평구청은 2012년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출이 지역에서 순환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교육경쟁력 제고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발굴·개발하고 학교에 연계·보급"하는 교육콘텐츠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의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심사한 후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관내 학교에 소개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산은 학교에 교부된 교육경비 보조금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집행하였다.

◇ 서울시는 2014년 3월 '서울형 교육우선지구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문용린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2013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진행했던 혁신교육지구사업이 계속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 단독으로 진행한 사업이었다. 2013년에 진행된 구로·금천혁신교육지구 사업에서 효과가 컸던 프로그램을 타 자치구에도 확산시킨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은평구는 교육우선지구로 선정되어 서울시에서 지원된 3억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교육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오던 교육연구모임을 운영협의회로 변화, 우선지구의 사업을 논의하는 구조가 되었고 사업 전체를 구청에서 총괄 진행하였다.

◇ 교육우선지구 사업에서 최우수구가 되면서 교육보좌관이 교육복지과에서 근무하였고 교육정책의 구체적 비전과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혁신교육지구 TFT가 구성되어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다.

(나) 혁신교육지구 추진준비단 구성

◇ 혁신교육지구 추진 준비팀을 교육복지센터, 신나는애프터센터, 평생학습관, 진로직업센터 등 위탁기관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나 이후 민간 참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준비위원회가 합류하였다.

◇ 매주 모여 사업의 비전과 내용을 토론했고 필수사업과 특화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동안의 공모사업은 구청에서 작성하고 지역에 재 공모하는 과정이 관행이었는데 이번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민관이 모여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며 지역의 교육적 과제를 논의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였기에 필수사업과 특화사업 선정이 원활하였고 사업 제안서도 최고로 우수하다는 평을 받게 되었다.

◇ 그러나 사업 선정 후 혁신교육에 대한 논의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모와 위탁에 관한 이견을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 진행이 2015년 6월부터 시작되었다.

◇ 2015년 '마을과 배움이 통합되는 마을 속 학교'라는 비전을 구체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정책협의체에서 '교육의 혁신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논의하였지만 구체화되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었다. 사업은 기관 고유의 사업과 차별성을 갖기 쉽지 않았지만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전문성으로 학교와 연계가 시작되고 혁신교육을 집중 고민하고 지역 확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 지원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발족과 3자 협약

◇ 2012년부터 지역의 아동청소년 관련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교육복지에 관한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삶 전반을 고민하고 정책마련, 실무자들의 역량·성장지원을 전제로 공간과 인적자원의 재구성을 목표로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이후 혁신교육지구 사업 방향에 따라 민관학거버넌스의 내용으로 서부교육청, 은평구청,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준비위가 혁신교육지구 3자 협약을 하게 되었다.

◇ 은평지역 다양한 현장이 소통과 협력의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의 삶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즐거이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꿈꾸며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는 2015년 4월에 발족하였다.

◇ 이후 아동청소년영역은 위기지원협의회, 돌봄연대 등 만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특성과 고민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라) 민·관·학 거버넌스

◇ 지역에서 교육부분 민관학거버넌스가 가장 활발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3자협약 후 2015년에는 월1회 정책협의체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혁신교육지원단 운영, 월2회 실무협의체가 운영되었다. 지역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의원, 교육복지과 과장, 서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과 과장이 참여하고 교사, 청소년기관 대표, 민간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월1회 논의를 전개하였다.

◇ 민관거버넌스는 2010년, 2015년 지자체선거를 통해 신나는애프터센터, (가)갈현동문화의집이 건립되는 등

정책협약과 실현을 경험하고 교육지원과가 교육복지과로 전환되면서 행정도 교육전문부서가 편성되었고 민간영역에서도 교육영역에 대한 전문기관들이 운영되기 시작되었다.

◇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면서 청소년, 교육 분야가 별도로 편성되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분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보장협의체 교육분과도 신설할 예정이다.

◇ 교육전문 보좌관을 배치하고 교육연구모임을 운영한 것이 민관거버넌스의 토대를 구축하고 교육영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교육연구모임을 운영하면서 교육경비지원을 마을 강사를 토대로 하는 마을콘텐츠사업 '마을속 즐거운 학교'사업으로 5년간 진행하여 마을방과후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 하였고 학교의 행정업무경감을 도와 학교만족도를 높였으며 교육우선지구 사업을 전개, 최우수구 운영구로 평가 받았다.

◇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서로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경험을 통한 신뢰가 형성되고 있다.

(마) 새로운 모색

◇ 방과후지원, 교육콘텐츠사업이 마을방과후지원센터로 분리되고 민간역량 강화와 지역주민 참여 지원 중심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수행을 하게 된 혁신교육지원단은 마을연계 교사협의회와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협의회 구성에 주력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학교, 학부모회 등 기존 활동을 하고 있는 부모와 연계하여 이들이 교육의 변화 주체로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은평청소년수련관, 신나는애프터센터 등 청소년기관의 우수프로그램을 지역에 확산하고 전문성으로 학교와 연계하였던 것이 1기 혁신교육지구 사업이었다면 2기에는 공개 공모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진 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무려 16개의 프로그램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운영된다.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서로 협력하고 연계한다면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교육전체의 변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 우선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마을 연계 교과과정 개발, 혁신학교 지원 및 연계, 청소년의 자치를 통한 학생회 네트워크와 청소년 의회 활성화, 진로 교육의 현실화, 자유학기제 체계적 지원과 전환기 교육 지원, 중학교 종합예술지원과 독서토론문화 조성, 위기·학업부적응 청소년 지원 등. 이는 혁신교육지원단과 16개의 프로그램운영기관, 학부모, 교사가 협력하여 진행해야한다. 또한 주요한 지역과제인 응암중학교 설립, 꿈나무마을 지원 등도 함께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한다.

필수2
진로직업 교육지원 은평드림스쿨
/ 은평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은평혁신교육은 [진로교육]이다

마을기관의 참여와 대학생멘토 발굴을 바탕으로
지역 진로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장직업체험공모 사업

마을의 10개 기관과 함께 현장직업체험을 운영하여 진로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 청소년들이 현장(일터)에서 다양한 실무 직업체험을 통해 일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하는데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참여기관 10개

174회 운영 (4~11월)

참여 아동청소년 총 1,544명

체험내용

- 청소년노동인권교육 -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권리의식을 함양시킴
- 웨딩플래너 (WPS웨딩더부띠끄 파티바이사비나)
  - 웨딩드레스샵, 예물샵, 예식장 현장 방문 및 웨딩플래너실습
- 음악교육콘텐츠제작자(고구마교육음악연구소)
  - 음악을 녹음 편집 전송하여 음악파일제작과정 체험
- 놀이문화강사(노는엄마협동조합)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놀이문화 체험과 놀이를 통한 직업연계과정 소개
- 피부관리사(로하스협동조합)
  - 올바른 세안법과 화장품 선별하는 방법 등 피부 관리 방법 제공
- 상담사(보아스아동청소년상담센터)
  -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상담의 다양한 방법에 대한 체험
- 세계의 다양한 직업(다문화박물관)
  - 외국인강사들과 세계 다양한 직업체험과 해외취업사례 소개
- 학예사(유진문화센터)
  -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체험활동 제공
- 천문학자(은평천문우주체험관)
  - 우주에 대한 기초 지식 습득과 망원경을 통한 천체관측
- 조경기능사(은평향토교육협동조합)
  - 농원과 화훼단지에서 조경 체험 및 조경기능사의 이해
- 떡공예가(한국라이스클레이협회 쪼물쪼물떡놀이터)
  - 떡 만들기, 데코레이션 작업 등 떡 공예가 체험

은평대전

은평대전(은근히 평범한 대학생 언니오빠들의 전공이야기)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대학생멘토가 일반고 고등학생들에게 전공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고 교실에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은평대전 I , 멘토들이 다니는 대학을 탐방하는 은평대전 II , 1:1 박람회형식으로 진행되는 은평대전II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 학생수 (연인원) 7,733명

참여학교 9개

대학생 멘토 128명

[은평대전 I]

대학생멘토가 일반고등학교 교실에 직접 찾아가 자신의 전공, 진로방향, 입시준비 등을 강연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학과선택 및 의사결정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은평대전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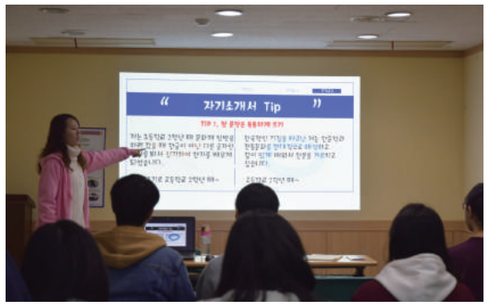
일반고학생들이 대학생멘토가 다니고 있는 서울 소재 11개 대학교의 탐방을 통해 대학생활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목표설정의 동기를 부여하였습니다. 대학탐방 커리큘럼은 각 대학멘토들이 직접 회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했습니다.

10월29일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명지대, 명지전문대, 한국항공대 탐방

11월5일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이화여대, 한양대 탐방

[은평대전Ⅲ]

11월 13일에 열린 은평대전Ⅲ는 대학생 멘토가 꾸리는 전공박람회로 65개의 전공부스를 운영하여 진학상담, 학과체험, 학과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일반고 학생이 정말 필요로 하는 학과, 입시, 대학문화에 대한 실질적 도움으로 각 고등학교 100명씩 총 1,000여명이 참여하는 은평구의 일반고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멘토 7명의 생생한 스토리강연과 청소년비전위원회 2기가 주축이 되어 미션부스와 간식부스가 운영되어 박람회의 재미를 더한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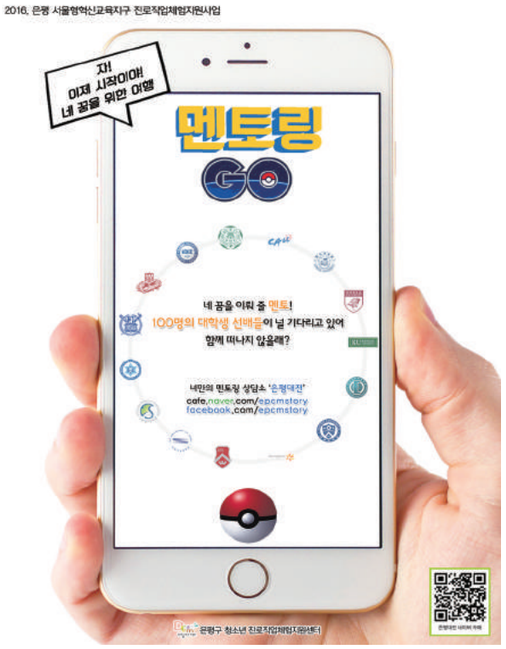


"은평대전 대학생 멘토로 활동한 2016년은 같은 동네의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이었고,
은평구의 또래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

- 신학과 2학년 **장현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나의 전공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뿌듯한 경험이었다."

-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3학년 **김다빈**



함께 나눈 전공이야기는 온라인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네이버카페 cafe.naver.com/epcmstory
페이스북페이지 facebook.com/epcmstory

필수3
마을학교연계
/ 은평혁신교육지원단

은평혁신교육은 [마을 속 즐거운 학교]이다

마을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커리큘럼을 마련하며
학교행정업무 절감을 위한 학교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은평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콘텐츠가 학교에 원활히 연계될 수 있게 학교행정업무를 경감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콘텐츠의 질을 담보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뿐 아니라 지역 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도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였으며 2017년 교육콘텐츠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발굴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175개 단체, 241개 프로그램이 공모에 선정됨)

117개 단체

67개 학교 연계

23개 지역아동센터 연계

212개 프로그램

방과후 지원사업

마을과 연계한 방과후 교실 운영을 희망한 선일여자중학교를 대상으로 1년간 마을방과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마을 안에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진행 강사, 기관 뿐 아니라 안전한 공간을 발굴·연계하였습니다. 특히 2학기에는 지역 동주민센터와 협약을 맺어 공간사용을 지원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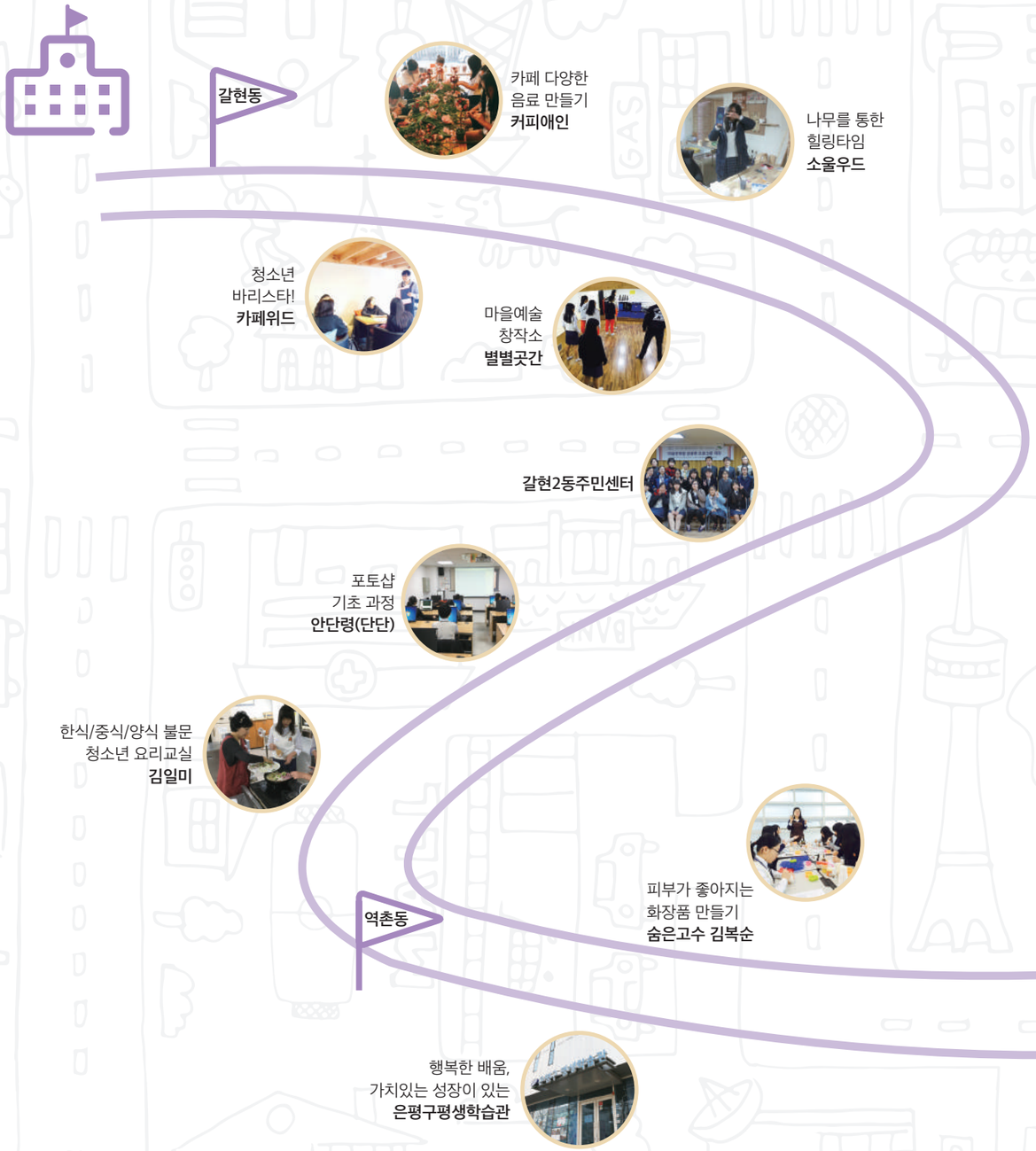
참여학생수(연인원) 573명

프로그램 11개

FOCUS IN

방과 후, 집으로 가는 길

방과후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갈현동을 비롯하여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학생1 / 매일 지나다니던 곳인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학생2 / 아빠가 일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되었어요

학생3 / 친구집이 OO동 이라는 걸 알게되었어요, 다음엔 친구네 집에 놀러갈거예요~

방과후 지원사업 활동 영상은 여기서!!
www.epsmiletown.com

전환기 지원사업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전환기 지원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어떤 곳으로 놀러갈까, 무엇을 체험할까 등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부터 활동결과발표까지 주체가 되어 참여했던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학교 6개

프로그램 10개

참여학생 수 573명

골목놀이터 프로젝트

아동·청소년이 동네 어른을 만나 함께 배우고, 함께 놀고,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공간이 은평구 골목 곳곳에 널리 퍼질 수 있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프로젝트 16개

참여아동·청소년 187명

참여주민 43명

FOCUS IN

골목을 누비다

깃발을 들고 누볐던 골목골목의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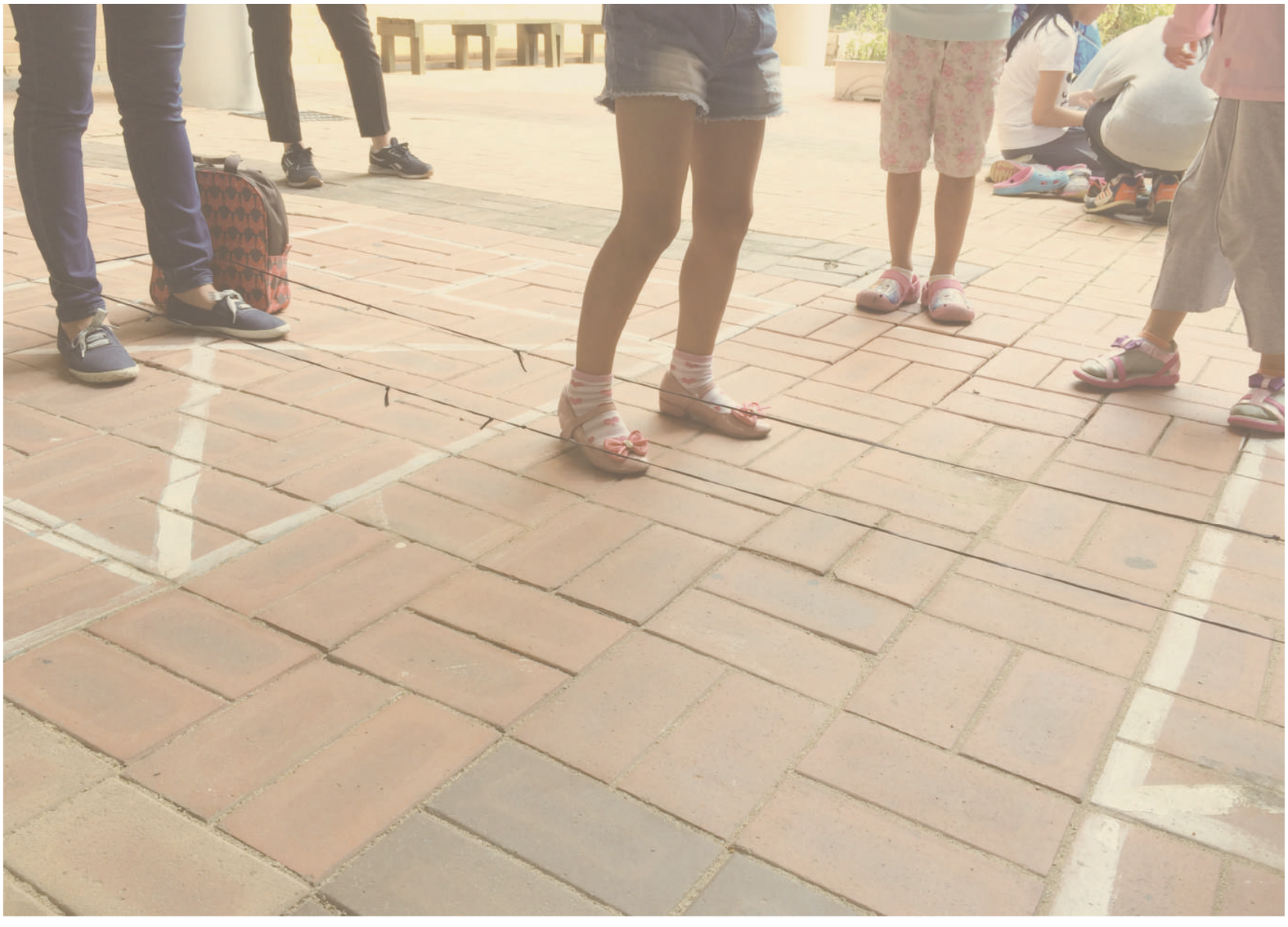
마 을 과 함 께 아 우 르 는 신 나 는 놀 이 를 즐 기 지 요

네 모 난 종 이 세 상 과

함께 꾸민 우리반의 정원

우리가 함께 그린 풍경, 어떤가요?

다 함 께 뛰 놀 수 있 는 놀 이 터 가 우 리 에 겐 최 고 예 요



많 은 친 구 들 을 만 날 수 있 거 든 요 !

다음엔 어디서 놀아볼까여?

은평혁신교육 [네트워크]망

필수4.1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 은평혁신교육지원단

다양한 아동·청소년 관련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민-관-학이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함을 통해
교육 아젠다를 발굴합니다.

찾아가는설명회

학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은평혁신교육에 대한 안내를 꾸준히 진행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PPT를 활용한 단순 설명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특별기획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반짝놀이터'에 참여하여 전래놀이를 하기도 했으며, 청소년들과 함께 주제토크를 진행하기도 했고, 일년의 활동을 사진으로 펼쳐보는 사진전 <사람을 꽃 피우다>를 열기도 했습니다.

설명회 14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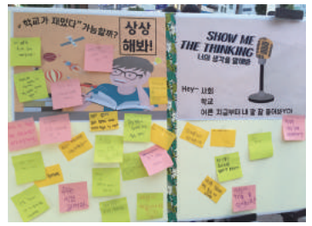
참여주민 약 270명

네트워크연계

아동·청소년 관련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규 활동이 지역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연계 네트워크]

- 은평혁신교육 민간실무자 회의
- 웃촌(은평 아동청소년기관 청년실무자 네트워크)
-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 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동청소년실무분과
- 은평노동인권센터
- 취약계층·고위험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한 협의회 / 서광청소년토닥토닥밥차



네트워크 주제 워크숍

제1회 네트워크 주제 워크숍 청소년위기지원 <새로운 날, 부탁해>

일시 6월 2일 (목) 17:00~20:00
장소 신나는애프터센터 4층 너른터
참석 총 24명
강사 변미혜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센터장)
내용 주제강의 :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사례 공유
지역 내 청소년위기지원 사업안내
조별논의 : 청소년위기지원에 대한 은평의 새로운 생각

제2회 네트워크 주제 워크숍 우리동네 아동청소년 삶을 함께보다

일시 9월 22일 (목) 15:30~18:00
장소 신나는애프터센터 4층 너른터
참석 총 40명
사회 라미영 (은평교육복지센터장)
기조발제 김형태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조준호 (엔젤스헤이븐 상임이사), 이미경 (은평혁신교육지원단장)
내용 시설 아동청소년 지원에 대한 논의

네트워크대회

일시 10월 29일 (토) 10:00~17:00
참여 아동청소년의 삶과 교육에 관심 있는 다양한 사람 (총 114명)

두 번째 동네에서 열린 교육축제의 장

2016 은평 아동청소년 네트워크대회

마을의 힘으로 새로운 교육을 상상하자

왜 마을의 힘인가?

마을 곳곳에 아이들을 만나는 현장들이 있고, 이 역사는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은평은 서울의 다른 자치구보다 아동청소년 인구도 많고 돌봐야 할 아이들의 수도 많지요.
그만큼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별 기관과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비록 정규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배움의 확장이 필요한 시대이기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이 있기에 아동청소년이 마을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새겨보고 더 나은 새로운 교육을 위한 고민의 장이 필요했습니다. 분명한 '이것'을 찾지는 못했어도 아동청소년이 마을 안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아 갔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을이 새로운 교육을 말하다

마을에서 산다는 것, 마땅히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것

이미경 은평혁신교육지원단장

‘대학을 가야한다’ 라는 패러다임을 깨는 청소년

우리 사회는 사람답게 살려면 ‘대학’을 가야한다고 믿는다. 나도 그렇게 믿어왔다. 나 역시 대학을 나왔고 집의 아이들도 당연히 대학을 갈 것이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초중고를 보냈다. 대학을 지금 당장 가지 않겠다는 둘째 아이에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묻는다. “진짜 대학 안 가?” 대학을 안 가는 것이 성인으로의 성장을 거부하는 것, 철없는 것처럼 보이나보다. 심지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느껴지나 보다. 나도 그랬다. 아이들을 처음 만나서 “저 대학 안 가요! 대학 가면 뭐해요?”하는 말에 당황하기도 하고 아직 어려서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심지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겠다는 아이에게도 “나중엔 넌 대학을 가게 될 거야! 너는 꼭 대학을 가야해!”라고 이야기 했었다. 그렇게 난 대학을 가야한다고 생각해왔다. 얼마 전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이하 은아청) 포럼에서도 생활시설 아이들의 대학 진학이야기가 나왔다. “아이들의 삶을 위해 반드시 가야하지 않을까요?”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30년 전 내가 왜 대학을 가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대학에 대한 이미지가 명확하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근처에서 좌절한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아빠는 야간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한에 대해 우리 자매들에게 수없이 넋두리 했다. 그 이유에서인지 우리 자매들은 대학 진학을 당연시 했다. 그래서 난 대학에 입학했다. 나에게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왔다는 이유로 출석부로 맞는 것도 감수했고 야자와 방학 학습, 고난의 진학 공부를 견뎠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은 덤이었지, 결코 즐겨서 안 되는 일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대학입학에 성공했을 때 ‘내가 그토록 원했던 대학이 이런 것이었는가?’하는 질문을 수없이 하며 대학의 본연의 목적과는 다른 삶을 살았고 ‘목적이 분명했던 고등학교 때가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며 대학생활을 했다. 나는 대학입학을 하지 않은 많은 친구들이 고등학생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친구들의 삶은 어땠는지 관심이 없었다. 가정경제 때문에 취업을 해야 해서 학교를 그만둔 친구, 딸아이가 대학을 붙을까봐 미역국을 끓여 주었다는 친구 엄마의 고백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렸던 기억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동네 아이들을 만났다. “제 주위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 친척 중에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없어요”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때 나는 당황했다. “대학은 가야지!”하는 이야기 외에는 하지 못했다. 담임선생님과 연계하여 간신히 중학교를 졸업하게 된 아이에게 영어와 수학은 외계어였고 학교는 밥을 먹기 위해 가는 곳이었다. 이 아이에게 “그래도 대학은 가야한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가?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겠다는 아이한테 어떤 교육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가? 입시교육, 경쟁교육이 그 아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은 폭력 아닌가? 인간적인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가? 진정으로 중학교만 졸업하고 자립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했다. 결국 난 답을 찾지 못했다.

작공에서 나와 보성샘은 대학을 ‘새로운 경험을 제공’, ‘익숙한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해 끝까지 대학 입학을 포기하지 않았다. 10대는 지능이 성장하는 시기이므로 학습의 경험을 가져야한다는 논리부터, 영어는 할 수 있어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고 공부를 시켰다. 자기소개서를 써주고 내신 성적을 위해 일요일 밤11시까지 사회, 역사, 경제, 영어를 가르쳤다. 그러나 아이들 모두 수능 보는 날 pc방에서 죽때렸다. 그때 우리는 현실을 보았다. 내가 작공에서 만난 100명의 아이들 중 3명만이 대학을 갔다.

우리는 ‘공교육’을 ‘학교’라고 부른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중학교를 가야하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모두 고등학교를 가야한다. 그러한 우리 교육의 결과는 어떠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은 자립할 수 있는가? 자립하는 인간으로 살기위해 대학을 가야하는가? 대학을 졸업하면 우리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가? 자립하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 힘을 갖고 있는가?

아이들이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한다. 대학을 가는 순간 빚더미에 앉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할 수 없으며 자신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안다. ‘혹시나’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순응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현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엉덩이를 맞으며 공부하던 아이들도 대학을 가지 못했고, 대학을 갔던 아이들도 학교를 그만두고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에서 친구들과 재미난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며 돌아왔다. 그러나 마을에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배울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배우게 하지도 못했다. 대학 이외에 20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없었다. 스무살 학교를 만들기도 했지만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아이들은 선뜻 배우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그들은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성인이 되어 있었다. 이 아이들에게 “대학을 가야한다”고, “너도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부끄럽다.

작공의 아이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다. 이들에게 생존조차 저절로 주어지지 않았다. 때리는 아빠, 남편이 싫다고 집을 나간 엄마, 정신지체 할아버지의 옷을 빨면서 10대를 버텼고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는 것이 하루의 미션이었던 아이, 엄마를 따라간 누나 때문에 싫어하는 아빠와 살아야했던 아이, 형의 구타에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아이들, 어려서부터 맞았던 공포와 자기보다 작아진 아빠를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집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 살기위해 가출을 선택한 아이들은 생존이 불안하고 살기위한 본능만 강해진다. 이 아이들에게 꿈과 미래는 없다. 살아야한다는 본능밖에 가질 수 없었다.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아무도 이야기 해주지 않는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다. 중학교만 졸업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학교와 사회는 말한다. 그렇기에 이 아이들은 중학교만 졸업해도 살아가는 방법을 동네 형들에게 배웠다. 이 배움에 동네 아줌마들이, 작공이 도전장을 내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입시를 거부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학교만 졸업해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중학교 교육은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자립의 기본이 되는 생활교육이 되어야한다. 그래서 중학교 교육까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 교육은 선택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필수로 생각한다면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 무상교육이 되어야 한다. 청년수당을 이야기하고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왜 이야기 하지 않는가?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교 무상등록금까지 이야기하는 세상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인문계고등학교를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으로 위치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대학입시를 위한 고등학교 과정을 거부하자.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면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요구해야한다. 98% 청소년들이 진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으로 제공해야한다(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교육으로 수업료가 면제이고 인문계고등학교만 수업료를 내고 있다. 대학을 가지 않겠다는 청소년들도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해 수업료를 내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생산의 주체인 노동자로 살아갈 많은 아이들에게 현실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한다. 그런 학교로 자기 선언을 하라!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이여, 함께 배우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 교육을 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이야기하자.

그 입시교육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청소년과 청년에게는 맞춤형 다른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은아청에서 하고자했던 '스무살 대학'이다. 다르게 살아감에 대안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제대로 준비하여 진행하지 못했다. 입시교육을 거부하는 청소년을 학교밖, 학교부적응 청소년으로 부르지 말고 우리지역에서는 "학교 정상화를 본능적으로 준비하는 청소년"이라는 뜻의 개념을 만들어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다양한 진로교육을 하고자하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고등학교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움직임에 학부모와 지역이 동참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존의 고등학교를 선택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학교밖청소년'이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에게 간헐적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들이 주도하는 10대 청소년 학교와 20살 학교를 구에서 지원하고 만들 것을 제안한다.

마을의 진로교육 - 미래의 노동자

처음 만난 아이가 국어 47점 맞았다고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내밀었을 때 '아,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몇 점 맞니?" 그랬더니 "저는 평균11점이요", " 저는 평균이 9점입니다"한다. "헐!" 아이들은 초등학교시절부터 학교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가 집을 나간 후부터, 그 이유가 아빠의 외도라고 생각하고 아빠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집에 가는 것이 싫어지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어울리고, pc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어려워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습과정에 손을 놓았다. 더구나 ADHD처럼 보이는 행동으로 인해 학교선생님들도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방치했을 것이고 학교시스템과 어른에 대한 거부로 일탈행위를 가속화했다. 자전거 절도와 친구들과의 갈등이 생활화되면서 아이들은 문제아가 되어 갔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감 향상이고, 그것의 시작은 성적향상이라고 생각했다.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학습 지원이라고 생각했다. 전직 교사였던 맹샘, 영어동아리를 꾸리고 있는 박샘, 우수한 성적으로 은고를 다니는 민이, 3년 기다려 모셔온 보성샘 등 교사진을 꾸렸고 전 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영이는 제법 잘 따라왔다. 고등학교 2학년, 반에서 8등하였다. '아! 할 수 있구나,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아이도 "더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고 싶다"라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 후 작공에 오지 못했다. 딱 한 달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겠다고 나간 후 오토바이 사고와 도난 사건으로 배달오토바이 비용을 마련하느라 기말시험 공부에 합류하지 못했고 대학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으로 대학도 가지 않았다. '열심히 하면 성적도 오른다!, 공부도 재미있다'라는 경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나는 크게 낙심을 했다. 대학에 대한 미련도 버릴 수 없었다. 그런 나를 도리어 아이들이 위로했다.

"대학 안가도 잘 살 수 있어요" "저, 피자집 사장님이 군대 갔다 오면 체인점 낼 수 있게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뭐가 될래?"라고 물었다. 내가 묻는 '뭐'는 뭐일까? 아이들 삶에서 그 '뭐'에 대한 고민하기 시작했다. 주위의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다. 마트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시는 과일가게 아저씨, 작공의 뜻이 '작심하고 공부하는 곳'이냐고 묻던 중국음식점의 배달 아저씨, 배달 알바생을 적극 지원하며 아빠역할까지 해주려고 노력하는 치킨집 사장님. '열심히 사는 저 분들은 언제부터 저 일을 하기 시작했을까?' 의 질문에서 내가 엄청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부 안하면 저 아저씨처럼 돼!"라고 말했다는 어느 아줌마와 다를 바가 없었다. 한 분, 한 분 보기 시작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 분들이고 동네 사람들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웃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제야 아이들의 미래가 다양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동네 분들만큼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일확천금을 벌기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려는 아이들, 떼돈을 벌기위해 도박에 중독되는 아이들, 생활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과일가게 아저씨를 만나게 해주었다. 만남을 통해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었다. 이웃 노동자의 삶을 보면서 커나가는 청소년이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진로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배우고 성실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이웃의 모습이 나의 미래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 나의 꿈은 지금 서있는

곳에서 시작되어야한다.
‘대학만 가면 뭐든지 할 수 있어’는 거짓말이다. 혹자는 말한다.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을 알려주면, 아이들은 우울해지고 그건 꿈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그러나 난 다르게 생각한다. 경제적 위기는 우리 앞에 분명히 있으며, 평생직장이나 안정적인 직장이 청소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기에 도리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노동의 현실에 대한 교육, 노동자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야만 진로교육이 될 수 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사회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마을의 진로교육
- ‘노동력의 가치’ 계산법

진로교육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모든 학생들을 대학진학이라는 목표아래 일렬로 줄 세우는 건 이제 가능하지 않다는 걸 현장은 알고 있다. 다양한 직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초등학생 때부터 진로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진로교육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한다.

지난해 은평지역 일반고 아이들에게 이루어진 진로교육은 바리스타, 애견미용사, 네일아트 자격 취득과정이었다. 각각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다. 자격증을 취득한 아이들도 많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취직한 친구는 얼마나 될까? 경험 제공의 의미도 있지만 현재의 인기 직업 중심으로 진로교육이 진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까? 또 한 때는 진로교육이 몇몇 부모들의 직장체험이었던 적이 있었다. 부모가 직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니 은평에서는 진행되기가 쉽지 않은 교육이다.

직업을 소개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진로교육에서 확장하여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현장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체험할 현장을 직접 발굴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동아리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또한 인턴 활동을 1주에서 3주까지 실제로 해야 한다. 청소년 인턴교육을 진행할 현장을 모집하고 면접부터 고객서비스, 그리고 생산까지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직장과 연계하여 진행하면 좋은데 쉽지 않다. 연계를 위한 역할을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을엔카페에 현장체험으로 중학생들이 오는데 관리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장체험을 제공하는 일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고 사회복지와 평생교육의 인턴과 슈퍼비전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활동들이 마을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마을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축제나 단체 활동 등을 통해 마을과 친해지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상상하는 것, 그것이 마을에서의 진로 교육이다. 그래야 마을 일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던 나리가 마을에서 실무자가 되고, 엄마와 아빠가 마을활동을 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민주가 창작소활동가가 되는 것이 좋은 예다. 마을은 청년이 필요한데 청년이 없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마을에서 찾지 않는다. 나는 돌봄 노동의 영역에서, 마을복지 영역에서, 생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본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사이에 일자리가 있다는 인식이 진로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는 없을까?

그러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소비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사회는 중산층의 기준을 몇 평 이상의 아파트와 자가용의 종류로 판단한다. 자신의 가치를 자기의 소비수준에 맞춘다. 희망소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펙이라는 자격증 전쟁을 하고 있다. 마을엔 카페지기들도 벌고 싶은 비용을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한 적이 있다. 소비를 기준으로 수입을 산정하고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니 노동력 가치는 없는 것이 되어 일하면서도 불행했다. ‘지금 왜 일을 하는가?’, ‘자신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노동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에 자신을 밀어 넣을 것이다. 더 많은 교육을 계속 소비하는, 교육소비자가 되어 가는 청년 중 한명이 될 것이다. 행복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고, 자신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는 힘이 마을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구체적으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진로교육이다. 이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마을살이가 미래직업? 지금, 마을 활동은 행복한가?

작공에서 ‘비진학 청소년, 마을을 만나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학을 가지 않은 아이들이 마을에서 친구들과 작공 선생님으로 살고 싶단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이들이, 되고 싶은 것이 없다고 하던 아이들이, 꿈이 없다던 아이들이 나에게 물었다. “우리도 선생님이 될 수 있나요?” 아이들이 작공에서 선생님이 되어 청소년을 만나고 싶단다. 해줄 말은 많이 없지만 ‘학교는 그만두지 말어’라고 이야기하고 싶단다. ‘학교를 다니기 싫어서 그만두었는데, 딱 한 달이라고, 한 달부터는 할 일도 없고 후회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단다. “그래 바로 그거야! 너의 이야기를 해주어”, “너희들처럼 다양한 삶을 경험한 청소년이 선생님이 되어야 다양한 삶을 사는 청소년들이 이해받을 수 있어! 좋아, 선생님이 되어보자”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아이들은 새롭게 공부하기 시작했다. 역사와 사람 이해를 위한 별자리 공부를 시작했고 마을예술가들을 만나 예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배우는 모든 것이 아이들 마음을 설레게 했다. 목공을 배우면 집도 짓는 나무예술가가 되고 싶다하고, 요리를 배우면 요리사가 되고 싶어 했고, 그림도 그리며 디자인을 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모든 배움은 오래 가지 못했다. 아이들은 진지하게 예술가들에게 물었다 “먹고는 살 수 있나요?” 예술가들 모두 “돈 벌기는 어렵지만 행복하다”고 답했다. 아이들이 뒤로 물러섰다. “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마을교사든 마을활동가든 아이들은 배고플 것 같다며 고개를 돌린다.

대학생들에게 직업 소개로 마을활동가를 제안하였더니 “얼마 법니까?”, “남편이 버니깐 마을활동을 하는게 가능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마을을 살만한 곳이고, 일할 만한 곳이고, 우리 사회의 돌봄과 삶을 지켜내는 곳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나는 내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마을활동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다. 자녀 양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서관 활동을 시작했고, 경제활동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을 했다. 마을, 공동체, 활동가라는 말의 뜻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16년이라는 시간이 훅 지나갔다. 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기도 했지만 나에게 절실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기에 그만두지 못했다. 육아가 힘들어서 수다방을 만들고 수다방을 통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가출한 아들과 딸에 대한 엄마의 마음을 서로 위로하면서 마을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웠다. 도서관에서 만난 엄마들은 동네 아이들을 돌보았고 다문화여성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도서관에 찾아온 청소년들을 품으면서 작공이라는 청소년도서관을 만들었다. 나와 이웃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만들어졌다. 꿈나무 도서관을 처음 개관을 같이 했던 동료들이 이제 도서관마을 사서가 되고 나 역시 청소년활동과 네트워크의 경험이 새로운 활동의 토대가 되었다.

경험이 경력이 될 수 있는 마을, 자격증만이 경쟁력이라고 말하지 않는 곳, 지치고 힘들 때도 많지만 절차와 원칙을 만들어가는 성장의 시간을 거친 사람들이 자기가 꿈꾸었던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마을이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로교육이다.

이제 육아를 벗어난 우리는 노년의 삶을 준비하고 노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다. 새로운 마을활동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난 좋다. (이것은 병일 수 있다. 새로운 일에 맘이 설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갈 사람들을 만나면 맘이 설렌다.
몸의 노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지만 동료의 태도 변화는 든든한 힘이 된다. 많은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친구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마을에서 받은 선물이다. 책을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울고 웃으면서 치유와 성장을 경험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있고 위로해주는 동료들이 있다. 위로를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함께 한다. 나의 마을활동은 외롭지 않다. 노년을 함께 보낼 친구가 있다는 것, 살만한 이유가 되고 일할 이유가 된다.

상상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마을을 만든다는 것, 그런 마을에서 산다는 것은 마을활동가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선물이다. 마을 변화는 나의 삶의 태도 변화에서 시작되고 작은 마을의 변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된다고 믿으며 사는 마을활동가, 꽤 괜찮은 직업이라 생각한다. 얼마 벌고 있냐는 질문엔 '교육과 의료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비용이 별로 없다는 프랑스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마을 이야기이길 바란다'고 답해야겠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돈 벌러 나간 작공의 청소년들이 사장과 단체교섭을 해가며 자신들의 일공동체를 구성해 일을 한다. 우리 모습을 보며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 우리들의 삶이 아이들에게도 녹아나고 있는 것이다. 잘 살아야한다.

FOCUS IN
2016 은평 아동청소년 네트워크대회 이야기마당

움틀움틀 디딤방 : 진로, 마을과 만나 자립을 논하다

"진로란 무엇인가?"

기관에서 지냈기 때문에 경험에 근거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대해서 생각했다. 학교의 졸업, 기관의 퇴소 순간부터 자립은 생계다.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 대학(공부)이 아니라 현실적인 자립을 위한 조언, 위로를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 자립을 해야 한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의 기초를 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밖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도와줘야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밖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담당자들이 이들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 선생님은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어야한다.

학교 밖 아이들은 중·고등학교-대학-취업의 길에서 벗어난 스스로를 인지하고 자신의 위치에 대해 불안감과 부담을 느낀다. 아이들은 대부분 검정고시를 따고, 따자마자 일자리를 구한다.
이런 아이들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건강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한다.

현장 활동가들은 대부분이 그런 환경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학교 안의 아이들 또한 진로고민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현장전문가로서도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이 된다. 현재 진행되는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은 아이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아이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진로 프로그램의 시작이 되어야한다.

진정한 자립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다.

취약계층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으로 자립과 진로는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이다.
결국 '교육'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교과교육, 형식적인 제과제빵교육이 아니라 집 앞의 목공소, 집 앞의 인테리어소와 같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마을과 전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한다. 구체적인 예로 마을에서 영리목적 사업을 하는 사장님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다양한 사업장의 사장님들이 인턴과정으로 아이들을 채용하기도 하고, 십시일반 모아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그런 지원을 하는 사업장들이 많은가?

왕왕 있다. 모든 사례가 성공적이진 않다. 장학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다.

'작공' 같은 하드코어 기관에서는 진로, 자립의 문제보다 더 기초적인 상처의 치유, 회복의 시간이 길다.
이를 위해 활동가, 전문가가 학생의 눈높이에서 기다려주고, 바라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밖 아이들뿐만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위권 성적에 있는 학생도, 중위권, 하위권
학생도 모두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의 역할 중의 하나로 이 모든 아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 중간층에 끼여 있는 아이들에 대해 집중해야하는 시기가 온 것 같다.

아아, 메아리방 : 마을, 청소년, 인권 잘 어울리기 위하여
청소년 인권을 위한 다짐

청소년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기
청소년을 미성숙하게 생각하고 대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생각 that's no no
아는 게 힘이다. 모이고 뭉치고 머리 맞대고 대화하자.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 지키는 것.
청소년 인권을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청소년 자치의 실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주변에게 참여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이 무엇인지, 다양성이 지켜지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탐색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성적권리와 관련된 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처음보는 청소년에게 무조건 반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동등한 관계 맺으려 노력하기
청소년 노동권 보호 실천!
청소년 임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도 고용주를, 고용주도 청소년을 인간적으로 대하기
노동권이 지켜지도록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하겠습니다.
차별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청소년과 같은 시야에서 바라봐주기
나에게 권리가 있듯이 타인(청소년)에게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기
청소년은 '나'다. 존중하고 싶은 '나'이다.
나의 청소년에 대한 생각이 폭력이 될 수도 있음에 좀 더 귀 기울이고, 배려해야 겠다.
나의 청소년기와는 다름을 늘 생각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덧씌우지 않기
청소년을 위해서가 아니라 청소년과 함께 살겠습니다.

쓰담쓰담 동상이몽방 : 학교는 마을에게, 마을은 학교에게 누구인가
서로의 이야기 듣기

교육복지
교육복지란 간단히 저소득층 학생을 도와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정을 방문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연계도 한다. 교육복지센터는 마을과 학교의 중간조직이다.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위해 다양한 연계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일정, 체계 등으로 인한 문제가 존재한다. 때문에 연말에 함께 논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검바우마을학교
검바우마을학교는 학부모회, 아버지회, 골목놀이터, 책뜰에 도서관, 건강한 먹거리 공동부엌, 똥고집 등 여러 모임을 통해 서로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검바우마을학교 운영위원회는 실행단, 마을PD단,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교사, 학부모가 업무 외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기도 한다. 행사를 진행해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일부뿐이다. 내년에 3년차라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부 지원 없이도 내실있게 지속 운영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숭실고등학교 사례
은평지역에는 사립학교가 많은데, 그 중 문제를 가진 학교도 많다. 숭실학교 또한 그동안 많은 문제에 휩싸여 있었다. 8건의 민사문제가 있었고, 경찰서에 업무방해로 고발을 하는 등 14건의 문제가 있었다.
숭실정상화과정에서 학부모 역할이 컸다. 학부모대표, 교사대표, 동문회대표,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숭실공백기를 채워주었고, 이후 출범식도 함께 했다. 숭실을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6년 7월 4일에 새로운 교장이 부임하면서 정상화 궤도에 올라섰다. 숭실정상화는 학부모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 생각한다. 학부모위원은 민주적으로 직접 선출하였고, 급식 모니터링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교육과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교육과정 논의도 하고 있다.
학부모 합창단도 조직하고, 학부모와 교사의 독서토론회도 진행 중이다.남아있는 과제라고 한다면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지금처럼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숭실고도 마을결합형 혁신학교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했다.

학부모
학교와 마을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지난 12년간 학부모로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학교는 왜 이렇게 답할까?' 이다. 아이가 중학교 입학을 할 때가 되면 a중학교는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접근하기가 어렵다.
오프라인에서도 그렇고, 마을에서 느끼는 학교는 '답답함'이다. 사립학교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이를 소중히 키우는 것 못지않게 이 사회가 건강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학교가 문을 열고, 학부모도 올바른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학교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두가 호흡을 맞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은평학부모네트워크에서는 작년에 '함께 맞는 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와 부모 등이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

모락모락 사랑방 : 실무자들은 마을에서 행복한가?

_____ 은평구에서 일하는 삶은 어떤가요?

은평은 다른 곳에 비해 기관이나 사람끼리의 품앗이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 때문에 힘든 점도 있는 것 같다.

연계가 잘 되어 있어서 한 곳만 잘 알아도 얻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또한 소소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주시는 등 살가운 점이 있어 매우 좋다. 하지만 간혹 연계와 관련하여 타 기관이나 사람들이 쉬는 날에도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거절하기도 어렵고, 쉬는 날이 쉬는 날 같지 않게 느껴져 힘들기도 하다.

타 구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이다. 은평구가 정이가고 좋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러 왔는데, 타구 사람이라 소외감이 느껴질 때가 있다. '구' 단위로 연계하고 모임을 갖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폭넓게 만나고 이야기하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부터 은평구에서 살았지만 계속 '타'구로 직장을 다녔었다. 은평구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은평구에서 일하고 지내는 게 뭔가 익숙하고 편해서 좋은 것 같다.

저도 은평구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고, 은평구에 있는 기관에서도 조금씩 일을 해보았다. 익숙하고 편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적으로 섞여 있는 부분이 많아 그에 대한 어려움도 있다.

원래 타구에서 생활하고 성장하다가 직장을 은평구로 다니게 되면서 은평구로 이사와 살게 되었다.
앞에 이야기된 것처럼 은평구는 품앗이와 연계가 모두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네트워크 안에 들어오면 나가는 게 어렵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다.

모락모락 사랑방 : 실무자들은 마을에서 행복한가?

_____ 삶터와 일터, 구분되어야 할까요?

구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만의 사생활부분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터와 일터가 구분되지 않았을 때, 사생활이 지켜지기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분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도 구분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나의 경험을 예를 들면, 쉬는 날 친구와 동네카페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일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어느새 나는 기관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문득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는 생각이 들었다. '삶터'와 '일터'가 같게 되면 아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 개인의 시간이 없어 에너지를 충전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이마트처럼 대형마트로 장을 보러 가면 아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게 되어 힘이 들더라. 그래서 만일 '삶터'와 '일터'가 결합이 되더라도 '그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해주는 '마을'이 된다면 괜찮을 듯하다. 그리고 이는 시민의식과도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따라서 쉬는 날 만큼은 서로 배려해 줄 수 있도록 시민의식 교육이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이 들며, 실무자들끼리라도 '우리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실무자들끼리의 네트워크인 '웃촌' 같은 문화가 넓어졌으면 좋겠다.

꼬물꼬물 꿈꾸는 방 : 현실이 되어야 할 꿈, 마을 속 대안교육

우리가 꿈꾸는 대안교육

돌봄기관이 아이들의 수에 비해 적다. 이는 돌봄이 특정아이들에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봄은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초기 단계보다 현재 돌봄의 질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고정 틀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는 여전히 질적으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 돌봄기관들의 연대를 통해 긴 돌봄(지역아동센터, 학교)과 짧은 돌봄(작은도서관)을 구성하여 운영해 보았다. 어떤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짧은 돌봄(틈새 돌봄)을 시작해보니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돌봄은 쉽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해줬으면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돌봄은 누구나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을 키우고, 성장하는 돌봄의 방법은 '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대안학교 붐이 일어났을 때 즈음 자녀를 대안학교로 보냈다. 그러면서 계속 대안학교에 관심을 가졌는데, 처음의 의미가 많이 변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기존 소수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귀족학교가 아닌 은평구에 맞는 대안학교가 필요하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학교 밖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밖에서 이뤄진다고 해서 모두 다 대안교육은 아니다. 공교육의 문제점을 말하면서 책임소재를 학교에서만 찾고 있지 않은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고민하며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대안학교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많다. 귀족학교, 지역의 기숙형 학교(지방에서 생활하다보니 교사에게 너무 의존하는 문제가 생김), 일반학교의 교육을 원하는 부모로 인해 소진되는 교사(5년차 이상 교사가 거의 없음)... 대안학교 자체도 제도권에서 섬 같고, 마을에서 고립된 상태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던 찰나에 마을에서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학교들이 같이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이 먼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철학, 가치를 주로 이야기하지만, 사회에 나오면 다른 철학과 가치로 인해 충돌하고,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말하는 가치가 살아있는 마을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전환학교 연대체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은평의 다양한 곳들과 연계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캠퍼스 또는 계절학교를 운영해 온 마을이 함께 만드는 학교를 만들거나 학교도 가지만 학교 가기 싫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꿈꿔본다. 마을에서 배운 기술을 마을 안에서 사용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고민들을 몇몇이 모여 그런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며, 은평구에서는 가능하다 생각한다. 꿈틀이 학교처럼 '인가학교'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제도교육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부모를 위해 대안학교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마을학교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대상에 대한 고민이 많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모아 계절학기, 단기학교를 만드는 것도 고민하는 중이다.

특화1.
자연치유학교
/ 은평교육복지센터

학업중단숙려제와 연계한 「마을이 학교다」

학업중단숙려제와 연계하여 장기결석 등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교육 및 마을예술 교육 등 지역기관 연계를 통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연치유학교

자연치유학교에서는 생태교육, 도자공예 등 다양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적응력 향상, 심리정서적 안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초 8개교, 111명

중 10개교, 58명

고 14개교, 78명

기타(학교밖) 1명

참여학생 총 248명

Q 학업중단숙려제는 무엇인가요?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교장의 권한으로 최소2주~최대3주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Q 자연치유학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학생의뢰
(학교 또는 지역기관에서 의뢰서 및 학부모 동의서 작성 후 공문 접수)

⇨

내부사례판정
(초기면담 및 내부판정을 통해 자연치유학교 참여여부 논의 후 프로그램 진행)

⇩

프로그램 결과보고
(출석부, 활동일지 등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송부 및 공유)

⇦

사후관리
(대안교육 프로그램 이후 학교 적응력 확인 및 가정 지원 등 학생 상황 및 욕구에 맞는 사후관리)

⇧

Q 자연치유학교에서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나요?

학생 맞춤형 1:1 프로그램으로 일정 변동 가능

시간	월	화	수	목	금
10:00~12:00	도자기교실	생태교육 (텃밭가꾸기)	도자기교실	심리 상담	생태교육 (텃밭가꾸기)
12:30~14:00	텃밭 식물을 주 재료로 점심 만들기 및 식사				
14:00~15:00	개별상담				

자연치유학교는?

힐링과 자유
자연스럽게 사랑이 모이는 곳
아이들의 놀이동산
연결다리
쉬어가는 곳
유치원
참여하면 후회하지 않는 곳

은평혁신교육은 **[돌봄]** 이다

특화2.
교육복지 생태계 살리기
/ 은평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은평에 사는 여러 돌봄 주체들이 모여
아이들이 편안히 쉬고,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장을 넓혀가고
아이와 어른이 함께 성장하는 돌봄생태계를 구축합니다.

함께돌봄사업

공동육아공동체, 도서관 등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주체가 동네 아이들을 대상으로 짧은돌봄, 야간돌봄을 시행할 수 있게 활동비, 간식비, 또래강사 등을 지원하여 돌봄공동체가 만들어 질 수 있게 연대하였습니다.

돌봄공간 4곳

참여아동 28

짧은돌봄

작은도서관 등 돌봄이 가능한 곳과 연계하여 돌봄활동을 지원하고 연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 기관이 없던 동네에 새로운 돌봄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진관동 두드림

- 4월부터 시작
- 월/수/금 17시~20시
- 초등학생 대상
- 석식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인원 : 8명

역촌동 초록길 도서관

- 6월부터 시작
- 월/수/금 15시~18시
- 초등학생 대상
-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인원 : 10명

성모소화의 집

- 9월부터 시작
- 새터민 미취학아동
- 초등학생 대상
- 은광지역아동센터와 매주 목요일 놀이와 백창우노래연습 연계
- 인원 : 9명

야간돌봄 (시범사업)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야간시간 대에 방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찾아 야간돌봄을 실시했습니다.

장소 은평마을예술창작소 별별곳간 (갈현동)
대상 초등학교 3학년~5학년명
인원 1명

세동네놀터

아이들에게 실컷 놀 수 있는 기회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월1회 이상 놀이활동을 기획·진행하였습니다.

총 12번

참여기관 약 9개

참여아동 약 400명

1	6월 27일	서울혁신파크	7	10월 10일	신사근린공원
2	7월 11일	진관사 입구 계곡	8	10월 26일	금암문화공원
3	8월 29일	금암문화공원	9	11월 7일	북한산 둘레길
4	9월 5일	증산생활체육공원	10	11월 23일	서울혁신파크
5	9월 19일	증산생활체육공원	11	11월 30일	서울혁신파크
6	9월 26일	신사근린공원	12	12월 21일	은평구청

돌봄생태계구축

욕구조사 (총 5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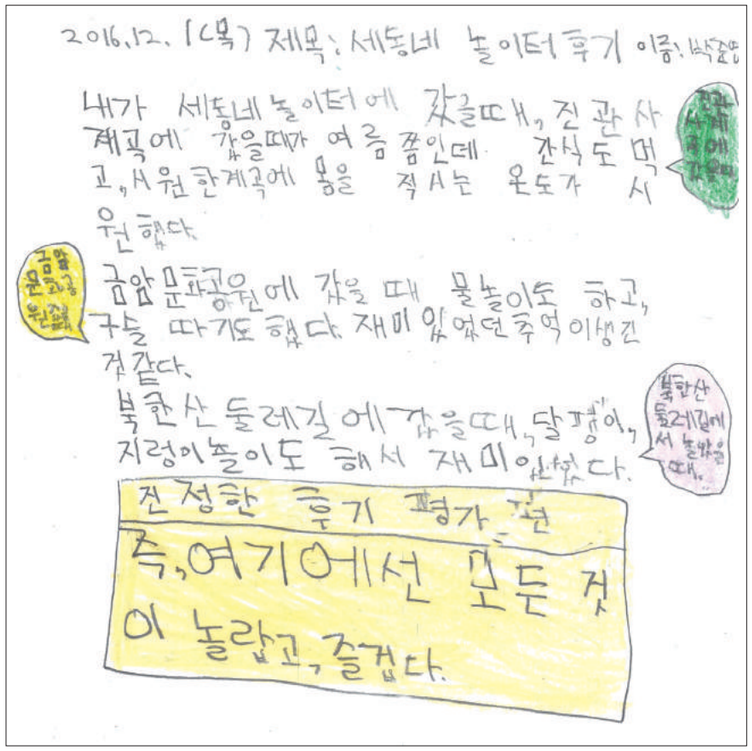
당사자, 학부모, 교사, 기관들의 서로 다른입장과 욕구를 조사하여 각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찾고 더 나은 돌봄의 형태를 모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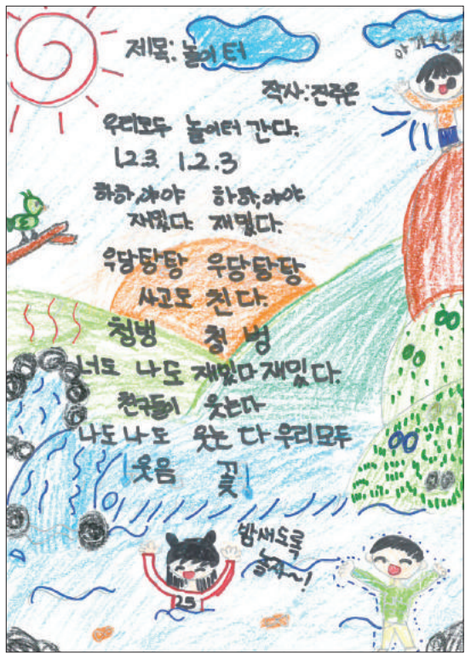
실무자역량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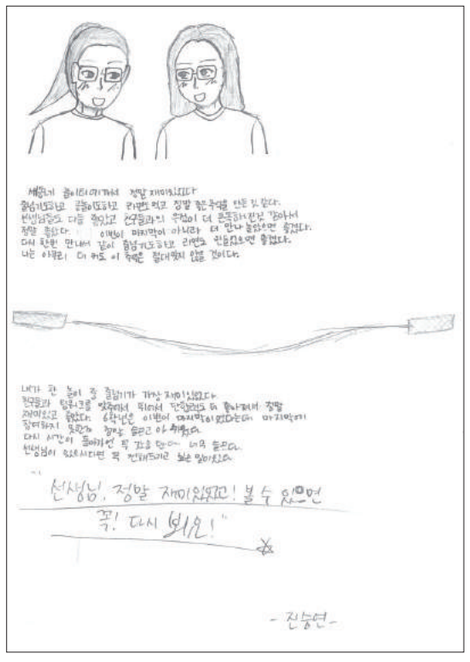
상반기 : 말랑말랑 놀이 워크숍 (돌봄관련교사 50여명 참여)

하반기 : 실마리, 이야기로 풀어보는 마을돌봄 (돌봄연대 관련 기관 15명 선생님 참여)

FOCUS IN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







초록길도서관은 저학년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들렀다 가는 정거장 같은 곳이다.
책가방을 던져두고 숙제를 하거나, 도서관 주변을 뛰어다니며 논다.
굳이 프로그램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아이들의 휴식처가 되어있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뭔가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방과후 돌봄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었다. 월요일은 민화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미술활동을 하였고, 수요일에는 요리와 영화감상, 금요일에는 책을 읽고 느낌을 글로 정리했다.

나는 금요일 오후를 맡아 아이들을 데리고 책을 읽었다.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은 스스로도 책을 읽지만, 주로 만화로 된 것이나 학교 추천도서이기 일쑤여서 좋은 책을 골라 같이 읽는 시간이 필요했다. 글이 적은 그림책으로 시작하여 아이들의 흥미도를 살펴보며 긴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에게 도서관이 편한 공간이니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되고 산만했으나 차츰 아이들이 글에 몰입하고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하는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라고 생각해서 쓰기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생각을 글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여 아이들 각자의 공책을 한권씩 장만하여 느낌을 글로 정리하게 하였다.
처음에는 두어줄 쓰던 아이들이 그날의 감흥에 따라 제법 긴 글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글을 쓰는 일이 아이도 어른이고 힘들다보니 과자나 간식을 보상으로 주었다.
더구나 돌봄 시간이 아이들이 한창 배고플 시간이라 아이들에게는 간식을 먹는 시간이 큰 즐거움이었다.

초록길도서관
백미숙

[마을누림]

특화3.
마을누림프로젝트
/ 은평구평생학습관

교사가 직접 마을자원을 알아보고
학급운영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연수를 운영하고
더불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 탐방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사연수

교사가 학급운영에 활용 할 수 있는 실질적 연수를 서부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직무 연수 학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연수인정기관으로 등록하여 운영했습니다.

일정

총 15시간
초등교사 7/26(화) ~ 7/28(목)
중등교사 8/8(월) ~ 8/10(수)

내용

[1일차]
- 은평지역사회 및 마을에 대한 이해
- 이말산 생태 탐방

[2일차]
- 수색동 및 신사동 산새마을 동네탐방
- 인조별서유기비 및 금암기적비, 진관사 등 역사탐방

[3일차]
- 학교에서의 실제 사례 연구 및 워크숍

학생과 함께하는 마을탐방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마을을 돌아보고 체험 해보면서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탐방하는 시간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일정

9월 ~ 12월 (총 52회 운영)

내용

[동네탐방]
- 갈현2동 상상골목, 수색동, 산새마을

[역사탐방]
- 진관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인조별서유기비, 금암문화공원 등

[생태탐방]
- 이말산, 북한산 둘레길

참여학생수 1,038명

* 초등학교 (8개) : 갈현초, 구산초, 대조초, 신도초, 역촌초, 은평초, 충암초, 진관초
* 중학교 (3개) : 덕산중, 상신중, 불광중
* 고등학교 (2개) : 예일디자인고, 진관고
* 은평대영학교 초등3,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참여교사수 150명

* 수리초, 역촌초, 연촌초, 은평초, 은빛초, 선일여중, 연천중, 선정중, 숭실중, 진관고

FOCUS IN
마을누림코스

갈현2동 상상골목
'2011년 와글와글 골목상상축제' 이후 갈현2동의 여러 기관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면서 길마공원 일대는 갈현2동 마을활동의 중심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전부터 이 골목에 있던 아동센터와 연결이 되고, 골목 여기저기에서 '공방'을 운영하던 마을예술인들과 만나 '마을엔 문화예술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N카페 - JY슈가룸 - 뜨개질닷컴 - 소울우드 - 프랭크우드 - 아빠맘두부 - 나예뜨레 - 예린POP

마을n카페 355-1533

산새마을
경관 가꾸기 사업을 통해 주민 모두가 신나고 재미있게 지내는 마을입니다.
새가 많이 찾아오고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린다고 해서 붙여진 산새마을은 1970년대 철거이주민 택지로 조성된 마을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던 이 마을은 2011년도 두꺼비 하우징 시범사업 마을로 지정되며 주민들의 주도로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형성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재개발을 하는 대신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가꾸는 방법으로 마을의 역사성, 환경성 등을 보존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과 마을의 주민들이 각양각색의 벽화로 마을을 꾸며 현재의 투박하지만 아기자기하고 예쁜 동네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산새둥지 - 동네골목 - 산새텃밭

산새마을 010-9852-9524(최복순 대표)

수색동
재개발 지역인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에서 청년예술가들이 모여 '예술활동을 통한 삶의 재발견'이라는 비전으로 마을활성화 및 도시재생을 위한 활동하고 있습니다. DMC와 수색 지역을 문화적지구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의 움직임과 홍대 주변에 많던 예술가들의 작업실들의 위치가 상권에 점점 밀려서 연남동, 동교동 지역으로, 현재는 더욱 밀려나 수색동, 증산동에 많은 예술가 작업실들이 있는 여건들 속에서 더 많은 작가분들과 지역주민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작업하면서 마을기능을 회복하고 살맛 나는 마을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수색역 - 수색굴 - 형제대장간 - 수색변전소 - 수일시장 - 지중해소나무

예술수색단 010-3210-1918(정현식 대표)

진관사
비구니 스님들의 단아한 수행처인 진관사는 서울의 북한산국립공원 삼각산의 서쪽 절경에 자리 잡고 있는 사찰로, 고려 8대 임금 현종 2년(1011)에 건립된 유서 깊은 천년고찰입니다.
진관사에는 우리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사자와 생자를 아우르는 범국민적인 국가행사로 불교의식인 수륙재를 대대적으로 봉행한 수륙도량이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진관사의 수륙재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매년 가을에 봉행되고 있습니다.

진관사 359-8410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은 은평의 역사가 담긴 지역 고유의 생활양식과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구민과 학생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와 은평구의 정체성을 살려 애향심을 갖게 하고자 건립되었습니다. 은평의 역사와 뉴타운발굴 유물이 전시된 은평역사실(1층)과 실제 한옥과 한옥의 건축과정 및 한옥의 과학성, 자연 친화성 등이 전시된 한옥전시실(2층)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 351-8523(도슨트 예약)

이말산
진관동 중심부에 버티고 있는 이말산은 옛날 이말이라는 자스민류의 식물이 많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동네 어디서든 오솔길을 따라 들어가면 산으로 연결되고, 토박이 어른들이 어렸을 때 무덤과 상석을 타고 놀던 재미난 놀이터이기도 했습니다. 은평뉴타운은 개발된 뒤에도 아이들의 숲 놀이터이자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산책길입니다.
이말산에는 조선시대 사대부와 내시, 상궁묘, 중인의 묘 등이 자리 잡고 있고, 딱따구리류를 비롯한 야생조류 약 25종, 털두꺼비하늘소를 비롯한 100여종의 곤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참나무류 등 약 160여종의 식물변화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이말산에서는 생태보전시민모임 물푸레생태교육센터의 주관 아래, 지난 2013년 10월 20일, 2014년 8월 28~30일 두 차례의 바이오블리츠가 진행되어 다양한 생물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물푸레생태교육센터 070-8863-9400 **물푸레북카페** 356-9410

참여교사들의 말말말

말로만 듣던 마을활동가,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위해 애쓰는 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좋았고 학교가 마을과 더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고 배운 것을 어떻게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모임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작은 모임이라도 운영한다면 무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선생님 A

교실에서 교과서로만 가르쳤던 내용을 직접 나와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어떤 때보다 의미있는 체험학습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알지 못했던 은평의 여러 가지 가치를 새삼 깨달았으며, 마을이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재밌는 방식으로 아이들이 은평마을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B

예로부터 백성의 궁핍함은 나몰라라하고 그저 부임지에서 녹봉이나 받고 임기나 채우려 드는 자를 경계해왔습니다. 저 또한 그러진 않았는지 크게 반성하였고, 은평에 좀 더 살가운 정을 느낀 좋은 연수였습니다. 서울교육이 지난 10여년 끙끙 앓았습니다. 교사들도 상당히 방어적으로 변했고, 그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원칙적으로만 해결하고, 도덕보다는 법률이 우선하는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와 마을 사이에 큰 벽이 생겼습니다. 서로 긴장의 끈을 팽팽하게 잡고 있어서 힘의 균형이 무너질까 조바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을과 학교의 결합은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지금은 태동의 단계이지만 조만간 벽이 무너지고 마을이 학교고, 학교가 곧 마을인 세상을 꿈꿉니다. 학교에서도 애쓰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중학교 선생님 C

학교 선생님들이 지역을 돌아보고, 관심을 깊게 가질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내서 나와 보니 보고 배울 것이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이나 방과후 수업으로 연계해서 진행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와서 봐야지 뭐가 좋은지, 어떤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양한 은평자원이 학교와 연계되고 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D

특화4.
청소년자치활성화
/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은평혁신교육은 [청소년자치]이다

청소년들의 자치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조직간의 교류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소년사회참여프로젝트 ‘신나는 상상’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보고, 청소년의 손과 발로 실현되는 사회참여! 기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7개 월동안 청소년 스스로 모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총 23팀이 진로, 기획, 봉사, 캠페인의 4분야로 나뉘어져 활동하였습니다.

참여 청소년 수 243명

최종활동팀 23팀

참여주민수 73명

활동기간 4월 ~ 10월
활동대상 4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 (12~19세 청소년)
은평의 즐거운 변화에 함께하고자 하는 청소년

활동세부일정

구분		일정	세부내용
모집		2/20~3/20	
선발		3/23	
합격팀 발표		3/29	
사전 워크숍	1차	4/2	참여인원 : 6팀 51명
	2차	4/3	참여인원 : 5팀 35명
	3차	4/9	참여인원 : 8팀 43명
	4차	4/10	참여인원 : 6팀 40명
	5차	4/16	참여인원 : 3팀 13명
중간점검 워크숍		7/24	각 팀 진행 중간평가 및 팀별교류 참여인원 : 23팀 47명
프로젝트 활동	팀별 활동	5월~10월	
	평가 및 정산	10월초	
	활동발표회	10/22	은평구청 은평홀에서 발표회 진행

FOCUS IN
동아리에서 지역참여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마음껏 상상하고 시도해볼 수 있는 '신나는 상상'
2016년도에는 23팀, 230여명의 청소년들이 신나는상상과 함께하였습니다.

내가 사는 우리동네가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은뉴.청' 친구들처럼 해보세요. 은평뉴타운에 사는 청소년들로 구성된 이 팀은 뉴타운을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버려지는 많은 양의 현수막들을 에코백으로 만들어서 지역에 기부하는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폐현수막을 수거하고, 에코백모양으로 자르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서 에코백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에코백들은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에게 기증함으로써 활동을 마무리했답니다.

정말 봉사다운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나요?
참된 의미의 봉사활동은 내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상대방은 어떤 도움을 원하고 어떤 느낌을 받을지까지 고려된 활동이라 생각됩니다. '귀여운 악동들'팀은 친한 친구들과 다같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해보기로 했어요.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작을지도 모르지만,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보탬이 된다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친구들이 생각한 봉사활동은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는 활동'이었어요.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통해서 꿈으로 가져갈 수 있을만한 재료들을 주는 활동이에요. 물건 구매부터 진행까지, 함께할 어린이·청소년을 모집하는 일까지 직접 고민하고 준비했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고민을 시작하는 것부터
생각이 현실이 되도록 발로 뛰는 것까지-
더 나아가 나의 고민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되돌아보는 것까지
모두 청소년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경험한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자치활동이며 참여활동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실천에 옮겨 세상을 바꾸어나간
23팀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신나는애프터센터
홈페이지(epyouth.org)에서 더 자세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여청소년의 목소리, 이야기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우리들이 직접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구체화시켜 실제로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니 어느 때보다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구산동도서관마을 청화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저희의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신사의후예

평소 학교생활만 하던 우리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것들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활동을 준비하면서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마음과 책임감이 들면서 우리들이 한층 더 성숙해졌다.
은평을금평으로

멘토의 역할은 마치 자전거의 보조바퀴와 같아서 언젠가는 자전거가 떼어내어 스스로의 힘으로 달려야 하고, 어디까지나 쓰러질 때를 대비하여 도와주는 것이지 대신 달려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학생 상상멘토 김민지

은평청소년참여자치캠프

다양한 참여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였고, 안정된 체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참여 청소년 수 82명

참여학교 18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0개교)

참여청소년기구 2개
(은평구청소년의회, 신나는애프터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FOCUS IN

한여름밤의 은평청소년일구미 꿈꾸라캠프

캠프에 대한 출발과 고민은 청소년들의 욕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16년 4월 은평구내 중고등학교 학생회 현황조사를 위해 중등학교 26개교 학생회 125명, 담당교사 48명에게 물었다.

캠프에 기대하는 점은?

학생회 1위. 은평구 청소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친교의 장(30.6%),
2위. 은평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책참여의 장(28.7%)

교사 1위. 학생회·참여조직 활동사례를 서로 보고 듣는 것(38.4%),
2위. 회의진행방법, 홍보 등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26%).

보다 청소년 주체적이고 청소년이 원하는 캠프를 만들어가기 위해 청소년기획단 10명을 모집하였고, 5월부터 캠프준비에 들어갔다. 학생회 현황조사 분석을 통해 일정표를 짜고, 지역에 캠프를 알려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직접 진행하기까지.

청소년들과 하나하나 의논하고 점검하며 만들어간 꿈꾸라캠프.
청소년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만들어간 캠프였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당연지사이고, 기획단들의 만족도 또한 남달랐다. 아마 청소년 스스로가 참여와 참여한 것들이 반영된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고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여청소년의 목소리, 이야기

한여름밤의 은평청소년일구미 꿈꾸라캠프 후기 中

- 사회참여에 관심이 있는 다수의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 그들과 새로운 관계,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너무 행복했다.
- 다른 학교의 운영사항들을 통해 우리학교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다.
- 앞으로 청소년들의 말문이 더 트였으면 한다.

학생회를 지원한 교사들의 인터뷰 中

- 참여하지 않으면 아예 바뀔 가능성도 없다고 말한다.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
- 학생회 활동에 있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다. 이끌어내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점차 나아지는 시간도 주어져야한다.
- 꿈꾸라캠프를 다녀와서 '참여'의 불이 켜졌다.

우리의 시선

돌봄이야기

김명자 은광지역아동센터

16년 돌봄 - 교육복지 생태계 살리기

지역아동센터, 학교 방과후교실, 청소년아카데미 등 기존 돌봄기관과 실제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연대하여 '더 촘촘한 돌봄안전망을 만들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진행했던 '2016 은평 서울형혁신교육지구-교육복지 생태계 살리기' 활동은 아쉬움도 있었지만 참여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는 즐거움'과 '새로운 돌봄의 필요성'을 알게 했다. 이 활동의 가장 앞자리에 서서 일을 했던 은평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사실 제 앞가림하기도 언제나 급급하고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돌봐왔던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마을돌봄을 꿈꾸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의 문턱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아이들을 포함해 마을에서 만나는 수많은 아이들의 돌봄을 걱정하게 했고, '돌봄의 보편성'을 생각하게 했다.

모든 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건강한 생태계가 되듯이 '돌봄생태계' 또한 마을 안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건강한 돌봄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돌봄은 보다 보편적이어야 하고, 공공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만만하고 보편적이며 저마다 다른 모습의 '마을돌봄'이고, 이것이 바로 건강한 돌봄생태계이자 마을공동체라 생각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누군가'를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한다면, 지금 초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을 둔 보호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안전망은 '마을돌봄'일 것이다.

마을돌봄 - 초록길도서관, 두드림도서관, 은평마을예술창작소

그래서 '교육복지 생태계 살리기' 활동이 시작되었고, 초록길 도서관과 진관동 어울림아파트의 두드림 도서관을 만나 '마을돌봄'을 진행했다. 그곳에는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와글와글 떼지어 있었고, 그 아이들을 말없이 지켜봐주는 어른들이 있었다. 그곳의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서로 약속하고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곳에서 만났고, 서로 아는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 무언가를 만들기도 하고, 책도 읽으며 재미나게 놀고 있었다. 이미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다. 짧은돌봄이라는 이름으로 그 둘의 관계를 한 발짝씩 당겼다. 만나는 시간을 정했고, 활동도 정했고, 간식과 밥도 같이 먹었다.

초록길도서관과 두드림도서관은 돌봄생태계 활동의 '짧은돌봄기관'이 되었다. 아이들과 어른들은 도서관 안에서 벌써 익숙한 사이였지만 '돌봄'이라는 테두리로 엮어 조금의 책임감을 갖고 돌봄안전망이 촘촘해지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는 점이 추가된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초록길도서관 돌봄에서는 책읽기, 민화그리기, 놀이, 영화보기, 음식만들기 등 아기자기한 활동을 했는데 사진 한 장만 봐도, 아이들이 쓴 글 한 편을 봐도 초록길도서관에서 얼마나 재미난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다. 초록길도서관 돌봄에 참여했던 어린 학생의 소감문을 보자.

요리시간 - 엄마랑 할 땐 엄마가 못하게 했는데 초록길에서 해서 좋고, 맛있는 거 싱거운 걸 먹어봐서 좋고 또 재미있다.
민화동동시간 - 그림을 집에서는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림도 못 그렸는데 민화동동을 하니 그림도 잘 그리고 생각도 잘 난다.
영화보는 시간 - 나는 아빠나 엄마가 자주 영화를 안 보여주시는데 수요일마다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니 재미있다.
책읽는 시간 - 책 읽고 독서록을 하는 것처럼 재미있었다. 하지만 어떨 땐 힘들 때도 있고, 졸릴 때도 있는데, 그때는 과자를 사주셔서 좋다. 그리고 초록길 덕분에 방과후를 안 해도 돼서 좋았다. (1학년 허영주)

진관동 어울림 아파트 두드림 돌봄은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의 품앗이돌봄이다. 그곳은 다둥이 아파트라 한 집에 아이가 최소 셋. 중학생인 큰 애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막내까지 엄마 혼자 돌보려면 숨 돌릴 새가 없다. 요즘 세상에 집에서 살림만 하는 전업주부 만나기 어려운데, 그곳에서는 아이만 돌보는 엄마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엄마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들의 이야기엔 반이 한숨이다. 학교 마치고 돌아온 1학년짜리 둘째를 혼자 집에 두고 막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부지런히 다녀와야 하는 엄마는 이럴 때 한 시간만이라도 누가 돌봐줬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학교 돌봄은 맞벌이 위주라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보내지 못한다. 학교 돌봄 이외에 마을에 돌봄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아파트작은 주민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돌봐준다니 반갑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둥이 아파트라 그런지 세 집 아이만 모여도 최소 여섯 명이다. 내 집 아이 숙제 봐줄 때 옆집아이 같이 봐주면서 시작한 두드림돌봄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아지트이다. 두드림돌봄에서는 주로 놀고, 가끔 공부도 한다. 엄마들이 전래놀이를 배워 아이들과 같이 놀고 저녁밥도 같이 지어 먹는다. 밥은 짓고 반찬은 집집에서 가지고 온다. 여러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찾아오는 아이들 때문에 그만 둘 수가 없다고 한다.
그곳에서 만난 엄마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전업주부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만 돌볼 때 관계에서 충돌이 생기게 되는데, 해결방안에 어려움이 있다. 돌봄이 있다면 해결방안이나 중재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육아를 잘 하고 있는지 타인의 눈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부모와 좀 떨어져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고 싶고, 아이와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받고 싶다,’

‘혼자 있는 아이들에게 배려를 가르치기 위해 애견을 키우기도 한다. 돌봄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어울려 자연스레 약한 사람을 돌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돌봄의 연령대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모두에게 돌봄은 필요하다.’
‘규격된 돌봄보다는 자유롭고 느슨한 돌봄이 있었으면 좋겠다. 골목놀이터 같은 것 좋더라’

2016년 사업이 끝나면서 두드림돌봄도 잠시 쉬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들은 두드림도서관에서 난리를 치고 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엄마선생님들도 쉴 새 없이 바쁘시겠지. 아이들 먹고 노는 일이 어디 쉬엄쉬엄이 가능한 일인가.

은평마을예술창작소에서 했던 **야간돌봄** 또한 정말 좋았지만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학교 돌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이들 중에는 아직 보호자가 집에 오지 않아 저녁밥을 혼자 먹거나 그 이후의 시간에도 혼자 있어야 하는 ‘저녁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 학교를 통한 수요조사에는 ‘저녁돌봄’ 숫자가 꽤 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학교 이외의 다른 돌봄을 이용해야 하는데 저녁밥을 먹고 그 이후 시간을 돌보는 곳은 지역아동센터 말고는 거의 없다.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정원이 있고, 학교 돌봄을 이용한 친구들이 저녁밥을 먹기 위해 연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친구들이 이용할 만한 ‘마을형 야간돌봄 기관’이 필요했다. 그래서 야간돌봄을 시작한 ‘은평마을예술창작소 야간돌봄’. 은평마을예술창작소는 주민들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마을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동아리 활동도 하고 생일파티도 이곳에서 한다. 근처 청소년들도 수학여행 때 장기자랑에 나갈 춤 연습도 하니 은평마을예술창작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래서 저녁돌봄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하지만 막상 시장하지 실제 이용신청은 거의 없었다. 거리가 멀어서,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학년이 달라서, 누가 운영하는지 몰라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느슨한 조건을 내걸었지만 저녁돌봄은 한 명의 아이만 찾았다. 물론 그 친구는 혼자였지만 끝나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창작소 야간돌봄에 왔고, 안 하던 숙제를 갑자기 잘 해와 학교 선생님을 깜짝 놀래키기도 했다. 지루하고 심심했을 텐데 선생님을 독점(^^)하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잘 마쳐준 은정이도 또 은정이 하나를 막내딸처럼 진심으로 보살펴주신 돌봄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놀이-세동네놀터

지난 2016년 돌봄생태계살리기 활동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은 ‘세동네놀터’ 활동이었다. 우리 동네에 골목놀이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연구원이자 대표이자 놀이설계자인 -하지만 우리는 그냥 ‘노는 사람’이라고 편하게 생각하는- 고길희 선생님하고 놀았던 활동이다. 이건 뭐 시작도 없고 끝났는지도 알 수 없는 그냥 막무가내 난장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나 지역아동센터에서 해왔던 ‘놀이’들은 대부분 시간과 규칙을 정하고 누군가 지도를 하거나 진행을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활동’이 끝나면 지들끼리 ‘놀자’고 한다. 그렇게 ‘수업’처럼 놀아왔던 우리들에게 ‘세동네놀터’는 틀을 확 깨준 활동이었다.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먹고 놀았다. 아이들을 인솔한 어른들도 같이 놀았다. 아이들이 어찌나 좋아하는지 2017년에는 세동네놀터를 조금 더 제대로 해보자고 벼르며, 참여하는 기관들이 요일을 정해 놀기로 약속했다. 주어진 것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이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그 선택의 즐거움과 자유를 누린 ‘세동네놀터’의 경험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을 것 같다.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가장 아이들답게 놔두는 일이었고, 그래서 돌보는 사람들의 평가도 ‘매우 만족’이다.

연대할수록 더 촘촘해지는 안전망

지역아동센터와 마을돌봄과 활동가들이 모인 ‘돌봄연대’는 아직 실체가 없다. 그냥 한달에 한번 만나 활동을 의논하는 정도의 모임이다. 하지만 우리 마을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저마다 다른 욕구를 반영해 다양한 돌봄을 만들어내려는 의지와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잘 돌보는 일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2016년에는 돌봄숲을 조성하기 위한 나무 한 그루씩 심었다. 우리도 저마다 크기와 종자가 다른 나무들이니 서로의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지지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관계가 건강해야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될 테니. 2017년 ‘돌봄영역’에는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고 활동도 더 다양해질 것 같다. ‘마을공동체가 마을의 교육력을 실현하고 아동의 삶을 지원’하는 은평혁신교육의 방향과도 매우 부합한 ‘돌봄’에 미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2016년 “돌봄숲연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국 일이나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떤 기억과 시간을 공유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기관 실무자들께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소중한 마음을 배웠고, 힘든 부분은 함께 나눠지면서 ‘연대’가 어떤 것인지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7년에도 소중한 이 연대가 계속되기를 바라며^^

(은평교육복지센터 권수민)

사족.
새로 만난 마을돌봄과 활동 이야기만 했다.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제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기존의 돌봄 기관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과 기존 돌봄 기관 선생님들 이야기는 다른 자리에서 여한없이 하기로 하고 아쉽고 죄송하지만 감사의 인사와 함께 글을 마친다, 2016년 ‘돌봄생태계 살리기’ 활동에 몸과 마음을 함께 열고 보탠 선생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청소년 자치활동

김지혜_마디 신나는애프터센터

2015년 7월부터 2016년 한 해 가득. '청소년참여자치'라는 키워드로 청소년들을 만났다. 1년 동안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청소년자치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원고의뢰를 받고 한참을 고민하다, 나의 청소년기 경험들을 되짚어보며 '청소년'과 '참여/자치'라는 키워드가 활동의 경험에서 진로, 가치관으로 안착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숫기 없고 내성적인 딸의 사회생활을 걱정하신 엄마 때문에 처음 청소년참여활동이라는 것을 경험했다. 그 때가 중학교 1학년.

동네 청소년문화의집 1기 청소년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에 무척 들떠있고 신나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 경험이란 알고지내는 다른 학교 언니오빠들이 생겼던 것,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 먹기, 버스타고 부산국제영화제 구경하기, 교류라는 이름으로 다른 지역 친구들 만나기 같은 것들이었다. 그렇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느끼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지나고 역할들을 맡게 되면서부터는 '청소년'과 '참여', '자치'라는 단어가 익숙해졌고, 차츰차츰 개념에 대해 배웠고 알아갔다. 그 후로부터 다른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로 활동들이 이어졌고, 청소년기본법상의 청소년기가 끝나갈 무렵까지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을 했다. 스쳐지나가는 많은 활동들 중에서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참여활동에 10년이나 집착(?)하고 활동으로도 모자라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내 삶에는 그 선택에 있어 결정적인 문장이 있다.

'어린 것들이, 니네가 뭘 안다고'

100세 시대. 우리는 적게는 20살부터 많게는 노인까지 '어른'으로 살아간다. 내가 청소년기에, 특히 청소년활동을 하면서 만난 몇몇의 어른들은 나에게 '나쁜' 어른으로 기억되어있다.

그 중 하나는 고등학생 때 '청소년옴부즈틴' 활동을 할 때의 기억이다. 2005년도에 청소년위원회에서 추진한 청소년옴부즈만 사업은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청소년 인권침해나 고충을 찾아보고 그 문제의 해결은 물론 제도나 법률개선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었으며, 이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옴부즈틴(Ombudsteen)이라 불렀다.

나는 영남지부에 속해 활동을 했고, 우리는 학생인권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다.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통로에 대해 논의하다가, 학교에서 학생회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자고 해서 설문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설문지를 각 학교에 배포하기로 해서,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가져가게 되었고 설문지를 돌리려면 교감선생님 혹은 학생부장 선생님의 허락이 있어야 해서 학생부장 선생님에게 설문지를 들고 찾아갔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나를 소개하고 내가 선생님을 찾아온 용건에 대해 말씀드렸다. 1:1로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려워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 활동이 얼마나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는지 구구절절 설명했던 장면이 어렴풋이 떠오른다. 웃으며 맞아주시던 표정과는 달리 첫마디는 '청소년? 어린것들이, 니네가 뭘 안다고' 였다. 나는 학교 학생회가 성적과 스펙위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설마 선생님이 그렇게 반응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큰 충격이었다. 허락해주시지 않아서 각 학급에 직접 들어가서 설문지를 돌리다가 선생님에게 붙잡혀 교무실로 내려와서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고, 조퇴를 하고 울면서 청소년센터 선생님들을 찾아갔었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교육을 해야 하는 '어린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어른을 직면한 나는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났었다. 그 이후로는 어른들의 단어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활동도 열심히 하게 되었던 것 같다.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과 상황들. 나의 인권이 무시되었던 경험들로 인해서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이 참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하면서는 청소년인 나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 청소년의 목소리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 내가 참여함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의 청소년자치활동

참여활동과 자치활동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다양한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경험을 축적시키고, 그 경험들을 배경으로 하여 본인을 둘러싼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 참여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본인 스스로의 삶을 다스리게 되고, 이는 더욱더 확장된 범위(이를테면 학교, 지역사회, 국가 등)로의 참여를 가능하며 이러한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자기 삶에 참여하는 '시민'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된다. 참여활동과 자치력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되어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다.
이제 청소년자치활동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짚어보려고 한다. 흔히들 '자치활동'이라고 하면 학교 내 자치활동으로 한정되게 인식해서 교내 학생회 활동이나 학급활동으로 구분하고는 한다. 하지만 모든 청소년이 학생이 아니기도 하고, 학교가 삶의 전부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내로 제한되어 규정할 수 없으며, 교외의 다양한 현장에서 요구되는 모든 자치활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청소년자치

활동이라고 이름을 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김민(2001)에 따르면, 청소년자치활동이란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 없이 구성원 자신의 합의와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청소년활동(Youth Activities)”를 뜻한다.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은 그 뜻 안에 이미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곧 자율적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자치활동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치활동의 기본적 속성이 곧 자율적인 참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청소년단체협의회, 2005).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청소년사회참여프로젝트 ‘신나는 상상’을 통해 400여명의 청소년을 만났다.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년 스스로 기획한 활동들을 진행하게 되며, 지역사회의 변화에 함께하고자하는 청소년 4명이상이 모이면 활동비를 지원해주는 사회참여 플랫폼이다. 사례를 들자면, ‘은평의 후예’팀은 학교선생님의 소개와 권유로 신나는상상을 알게 되어 친한 친구들과 함께 지원했다.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하는 기획부터 활동계획서에 기록한 것들을 실행으로 옮기는 활동, 그리고 전체 활동들을 평가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해보는 것이 막막했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지역사회가 만나는 접점’을 찾아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청소년들은 말한다.

청소년자치활동은 단순히 청소년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지역 공동체 내의 문제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즉 청소년만 잘 먹고 잘 사는 활동이 아니라 사회전체로 자신들의 힘이 확산되어 지역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한다. 이렇듯, 청소년자치활동은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만들어지는 주체적 활동이라는 특성과 크고 작은 집단을 통해 만들어가는 공동체 활동이라는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청소년은 청소년자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하는 방법을 배우며,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따라서 청소년자치활동은 청소년인권신장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보겠다(김지수, 2003).

청소년인권신장의 지름길

청소년자치활동은 청소년을 ‘시민’으로 보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청소년을 ‘학생’ 신분으로만 바라보는 제한적인 시선을 벗어던지고, 함께 마을을 살아가는 마을주민이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써 청소년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성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미성숙하고, 어린 존재로 청소년을 바라본다면 청소년들은 스스로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곳곳에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있다(촛불집회, 대자보, 국정교과서 반대운동 등). 최근에는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기 위한 움직임들이 확대되고 있다. 이 움직임들은 18세 선거권을 갖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청소년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포함한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 초점이 있다. 청소년도 이 땅의 국민이고 시민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자치활동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이런 청소년들에게는 문제해결을 함께 해 나갈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의회, 각 시설에서 운영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직들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현재 경험제공과 교육의 측면이 강하게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을 시민으로 만들어가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어야하고, 주체로서 다양한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을 갖추어 올바르게 판단하며 참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1년이다. 연임이 가능하긴 하지만, 1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시설이나 조직운영에 필요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생각한다. 시민의식이 높은 청소년들을 모집했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다양한 청소년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함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청소년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지난 후 당장 속해있는 당해연도보다는 차년도의 운영시스템을 청소년과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적절한 주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더불어 청소년자치활동 조직들간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한다. 2016년 은평혁신지구 청소년자치활성화사업에서는 은평구 중고등학교 학생회 현황조사를 바탕으로하여 학생회-학생회, 학생회-참여기구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장인 ‘한여름밤의 은평청소년일구미 꿈꾸라캠프’를 개최했다. 캠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학생회와 참여기구소속 청소년들이 함께했고, 교육보다는 정보전달을 통한 계획세우기, 교류의 시간을 위주로 하여 일정이 정해졌다. 1박2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장 열기가 넘치고 청소년들 스스로에게도 영향이 있었던 시간은 ‘교류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강사의 교육보다 나의 이야기, 나의 학교이야기, 나의 조직이야기를 꺼내어보고 다른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속한 현재의 상황을 판단해보고 또 다시 꺼내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캠프가 끝난 후에는 서로 다른 소속의 청소년들이 모여 은평구에 청소년만의 축제를 개최해보고자 하는 ‘후속모임’이 생겨났다. 모든 참여자와 은평구 내 36개 중고등학교를 아우르는 네트워크조직은 아니지만 이 후속모임을 통해 청소년들이 단단해지고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청소년자치활동 조직 간의 네트워크가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않든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유지되어가야 하는지 청소년들과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마을 속 교육복지공동체를 통한 학생별 개인성장지원 다각적 지원체계

라미영 前은평교육복지센터장, 現드림스타트팀장

우리에게 마을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 혹은, 마을 공동체는 무엇일까? 더 나아가 교육복지공동체는 어떻게 이뤄나가야 하는걸까?

우린. 지금. 그 속에서. 무언가.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은평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이 마을이라는 공동체 속에 녹아들어가 아이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되길 원한다면 마을이라는 곳이 아이들의 중요한 삶의 공간으로써 인식 되어야 한다. 따라서, 마을과 학교를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서로의 필요를 인식하게 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문제와 가정에 대한 개입을 함께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기관과 학교가 마음이 맞으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 함께 협의하고 지원사업을 해나가면서 학교-지역사회 관계망으로써 교육복지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2년간의 은평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학교-마을간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은평구에 맞는 방식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이제는 시도를 넘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이 연계/협력하여 학교별, 학생별 성장지원을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민에서 머물지 않고 두드림'으로 시작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두드림에서 지역별 실험'으로 이어져 '은평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안착 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 다져나갔으면 한다.

우리는 마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1. 마을과 어떻게 만나야 할까? 누굴 먼저 만나야 할까? 마을 학생들의 삶에 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2. 마을의 공간을 활용하고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을 이루려면 어떤 주체들이 협력하고 지속가능한 역할을 해야할까?
3. 마을에서 함께 아이들 문제를 나누고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어떤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까?
4. 공식적인 모임과 비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은평구 아동청소년지원체계를 다져나갈 수 있을까? 무엇을 먼저, 중요하게 해야 할까?

소통을 위한 방법, 제안

1. 함께 논의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
2. 공간에 대해서 편안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
3.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개입활동에 대한 방법을 함께 찾아봐야 한다.
4. 함께 지역사회에서 교육관련 공동의제를 만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5. 지역과 학교와의 네트워크 자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 아이들의 삶에 대한 공동의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준비하기

마을, 지역사회는 아동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에 관한 프로그램과 학교 내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가정을 지지하는 강력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과 그들의 문제들이 확인되면 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발굴은 필수적이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경험과 활동의 장으로 마을의 역할이 새롭게 대두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돌봄에 대한 가치가 마을활동의 사람중심, 과정중심적 가치와 맞닿아 있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 학생들과 가족을 위한 자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또한, 지역사회 체계에 대한 정교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해되고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마을, 지역사회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삶을 이루고 서로 아이들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치열하게 의제를 던지고 기관들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든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맥락을 함께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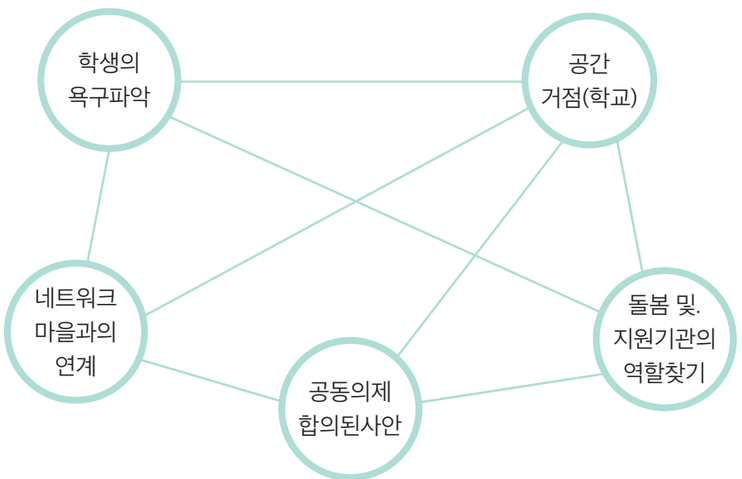
1. 지역사회를 정의하기. 이미 활용되고 있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사정하고 새로운 조기예방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우선순위들을 확인한다.
2. 지역사회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지원시스템에 참여시킨다.
3. 지역사회의 강점과 욕구 프로파일을 개발하여 위험요소들에 대해 개입의 목표를 세운다.
4. 기대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필요한 자원을 확인한다.

마을과 학교가 서로 손 잡고 나아가기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효과적인 협력과 통합의 필요성은 교육소외학생과 학업실태 및 학교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수가 점점 증가함으로써 분명히 강화되고 있다. 협력(collaboration)이란 사람들이 함께 일할 기회를 창출하는 계획된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인구학적 통계와 사회정치적 역동성을 잘 알아야 한다.

마을공동체, 지역사회는 물리적인 거리의 마을이 아닌 감성의 거리가 닿아있는 마을로써 다가가서 함께 공동의제를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는 실질적인 조직을 세우고 함께 역할을 해야 한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준비단계



마을은 공간이고, 장소에 기반 한다. 학교든, 유관기관이든 지역에서 만나는 마을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서로의 입장과 고민을 살피고, 함께 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공동체라 생각한다.
은평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은 마을 안에서 아이들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이들의 삶의 공간인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공통의 관심사가 무엇이며, 해결되지 못해 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마을문제가 무엇일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디가 비어 있고 어디가 중복되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 책상 위에서 하는 네트워크는 진정한 관계성을 만들어 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어렵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와 원활한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그러한 관계를 평가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만 한다. 이제 학교 혼자서 지역사회 아동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사회는 학교와 함께 지역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복지적 실천을 공유하고 협력해야만 한다. 이것이 곧 은평구 모든 학생들의 최소한의 복지를 지향하는 교육복지공동체의 필요성이다.
마을, 지역사회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삶을 이루고 서로 아이들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치열하게 의제를 던지고 기관들과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 필요도 있다.

은평 서울형혁신교육사업의 성공 요인 탐색

자발성에 기초한 사업

은평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은 기존의 사업과는 달리 학교와 마을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사업을 운영해야하며,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 질 때 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가 되며 학교 내 지원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이 가능해진다.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애정에 기초한 접근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학교별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시범학교 사업의 경우 초기에는 사업의 효과가 확실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연차가 지날수록 그 동력을 잃었던 것과 달리 아이들을 돌보고 지원하면서 오히려 실질적인 운영방식을 찾아가야 한다. 따라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교사들의 마을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지구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마을에서 진행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단위의 협의체를 통하여 조율하며, 확정된 예산이 학교와 마을로 지원되어 사업이 체계적으로 안착되어야 한다. 이는 일부 소수의 의견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지원예산이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 지원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인적·물적자원 질관리
학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학교와 교사가 적극적으로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교사가 중심이 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 위기지원 등 복지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자원함으로써 마을의 인적, 물적자원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화 되어야 가능하다.

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은평형 지원체계 안착화

아이들이 행복한 곳이 많아져야 한다.
환경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한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한다. 교육·복지·문화·정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제공하여 아이를 중심으로 총체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교사도 행복해야 한다.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교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 외의 업무를 분담해 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도 마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마을도 학교교육과정과 학교문화에 대해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협력적으로 아이들을 지원하는데 상호 도움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와 지역이 아이들 지원하는데 함께 할 수 있다.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꿈도 꿀 수 없는 학교와 지역사회라면 정말 암울 할 것이다. 혁신교육지구는 교육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자원들이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다. 서로 잘 몰랐던 학교와 지역이 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본 사업을 위해 지역에서도 교육적 관심과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민관학 거버넌스의 힘으로 새로운 교육을 상상하자

정승욱 은평구청 교육복지과장

나는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며 학이 참여하는 것이 은평 서울형혁신교육지구 민관학 거버넌스라 생각한다.

2012년 9월 13일 교육복지과 교육기획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처음 맞닥드린 교육연구모임은 나의 첫 거버넌스 경험이었다. 처음 느낀 것은 교육경비보조금 전반에 대한 간섭이 심하다는 것 이었다.

첫째, 기존 교육경비보조금 틀을 깨고 학교의 시설을 고치기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연계 보급해주어야 한다는 것. (은평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둘째, 교육청에서 중학교까지 지원하는 학교복지사 즉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이하 '지전가'라 한다)를 고등학교 학생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마중물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 (고교 학교복지사 지원사업)

셋째, 초등학교 1학년 급식도우미를 지원하여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까지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1학년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민관학 거버넌스 회의는 도시락을 먹으면서 열띤 토론을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진행했다. 늦게는 새벽 3시까지도 논의했던 기억이 있다. 그 당시 나는 이곳에 함께 앉아있는 학교 선생님, 대안학교 대표, 사회복지관장, 교육복지센터장, 평생학습관장, 진로직업체험센터장, 진학연구소장 과연 이들은 이곳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이 시간까지?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었다. 자치구의 교육정책이 잘못되어 있고 반드시 수정해야한다고 외치던 4년 전의 그들의 열정이 사뭇 그립다.

2014년 '서울형교육우선지구' 『청소년진로체험 프로젝트』로 일반고 학생 진로관련 학과탐색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관내 일반고 9개교 선생님들과 4시간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서울대를 견학하자는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대 쪽을 타진하고 최종적으로 교육 민관학거버넌스인 교육우선지구협의체에 이 안건을 붙였다.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던 기억이 있다. 학과가 다양하고 상징성이 있는 서울대를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학생이 과연 관내 얼마나 될 것이며 견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혜자 또한 적다는 이유로 본 사업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학생수송 버스가 출발 대기 중 이었으며 많은 부분이 계약되어 있었기에 내부에서는 취소는 안된다라고 했었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선생님들 말대로 단체 학교 방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학교 동아리 중 하나와 계약을 통해 그 동아리에서 각각의 전공학생들을 섭외하였고 이미 진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관학 거버넌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대학교 탐방은 취소하였고 그 이후 나는 학교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 약속 및 계약 파기에 따른 사과를 해야만 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탐방은 은평구에 살고 있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현재 자신의 전공을 고등학생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사업으로 바뀐다. 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대학생들을 어렵게 모집하여 진행되는 것이 은평대전의 시작이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은평대전은 총 120여명의 참여 대학생 중 1회에는 관내 거주 대학생이 30% 참여했지만 2016년 3회에는 80%의 참여로 늘어났고 그 참여자들이 청년마을멘토, 청소년 자치의 상상멘토 등에도 함께 하고 있다. 민관학 거버넌스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5년도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시작을 위해 모두 한자리에 모였을 당시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국장님께서 "거버넌스란 마음을 열고 함께 해야하는데 그것이 안된다면 '거 봐 넌센스야' 라고 깎아내릴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에 나는 공감한다. 민관학 거버넌스를 하기위해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려고 노력해야한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민관학 거버넌스는 계속되고 있으며 각각의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열의가 있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 속에서 교육에 대한 철학, 방향이 의견이 다양하고 때로는 갈등적 상황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내가 본 민관학 거버넌스에서 민은 가치를 중시한다. 관은 법과 규정을 준수하려하고 학은 교육적 효과를 항상 고민하는 것 같다. 여기에서 가치를 중시 하다보면 지켜야 하는 법과 규정을 어기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며 또한 학생의 참여에만 몰두하게 되면 교육적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법과 규정을 정확히 따지려다 보면 현재의 상황에서 바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혁신이라는 단어도 무의미할 것이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에서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하기 위해 항상 내부적인 명분을 찾게된다. 누가 수행할지, 목적에 대한 명분 등으로 가치와 명분의 혼돈 속에서 부딪칠 때가 왕왕 있다. 명분을 찾으려면 정무적이다 라는 말을 듣게되며 가치를 추구하면 내부 시스템과 마찰이 생긴다.

그동안 민관학 거버넌스를 경험해 오며 불편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성과로 인해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사업의 정책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공통적인 가치를 찾아내고 서로 합의하고 공유된 가치 내에서 실행방법의 차이점을 조율해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자산은 민과 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합해 이루어낸 성공의 경험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은평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은평대전 등이 그것이다.

민과 관의 입장차이로 인한 관점의 차이들은 꾸준한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관은 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관점을 인정하며 민은 관의 실행력과 공공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과 관이 현실 속에서 이룬 거버넌스의 성공 경험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은평구의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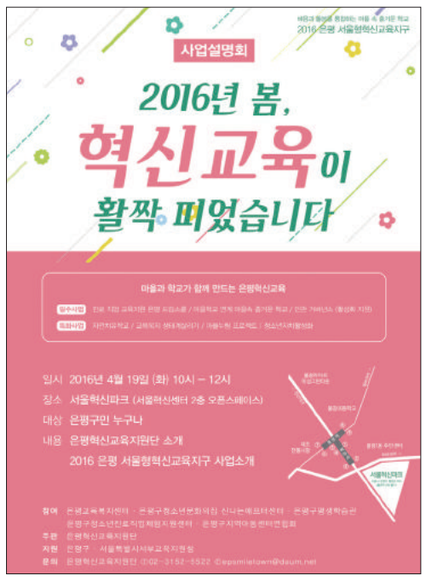
공무원으로써 민관학 거버넌스는 여전히 어렵지만 앞으로도 작은 거버넌스에서 큰 거버넌스로 가기 위해서 교육분야의 민-관, 민-민, 관-관 간의 건강하고 발전적 논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함께
만든
시간

4月19日 설렘

2016년 봄,
혁신교육이 활짝 피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은평혁신교육의 1년을 힘차게 응원하고 알리기 위해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서 설명회를 가졌던 날,
실무자들이 정성스럽게 안내 판넬을 만들어오고
반가운 얼굴을 보러,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그 덕분에 일년 잘 보냈습니다.



7月15日 반가움

은평혁신교육 반상회
이렇게 만나니 좋지 아니한가

진행과정을 나누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며 동거동락했기에
가능했던 2016 은평혁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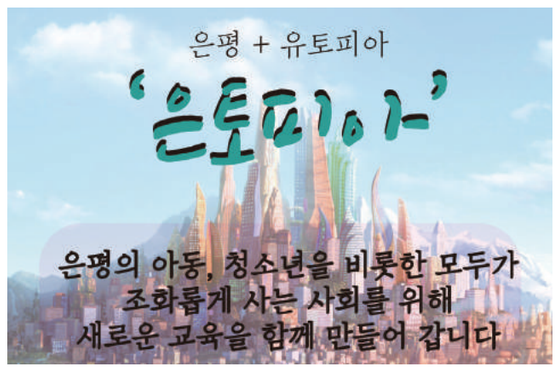
민 46명　　관 9명　　학 35명

9月9日 즐거움

은토피아를 꿈꿨던 날의 즐거움

더웠지만 교실수업이 아니라 좋았던 청소년들과
교육박람회에서 많은 청소년을 만날 수 있어 반가웠던 실무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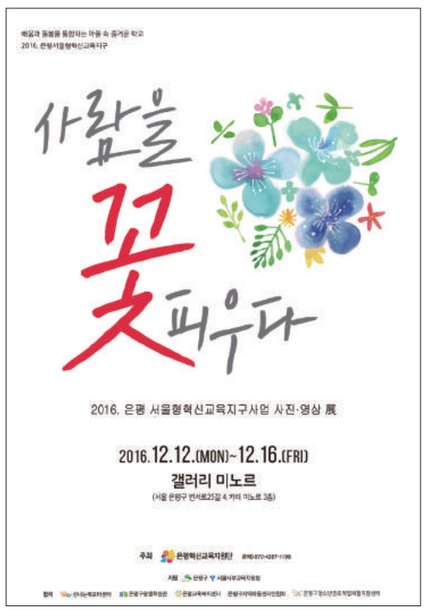
은평혁신교육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가고
더 즐거운 배움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12月12日~16日 뿌듯함

2016 은평혁신교육 전시 <사람을 꽃 피우다>
우리의 뿌듯함을 전시하다

동네 곳곳에서 펼쳐진 은평혁신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만나 볼 수 있었던 일주일
참여했던 아동·청소년과 어른들이 찾아와
1년 동안 참 즐거웠다 메시지를 전해주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은평구 교육박람회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응답은 약 1,200명이 하였으며 주요 응답층은 중학생입니다.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1위 교우관계 (131명)

학교폭력, 왕따 없이
사이좋게 지내기,
서로 간의 많은 대화

2위 수업 (123명)

수업시간 줄이기,
재미있게 수업하기,
체육시간 늘리기

3위 인성 (96명)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주기,
서로간의 예의 지키기

4위 활동 (84명)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체험학습,
진로체험활동

5위 환경 (83명)

냉난방을 자유롭게,
편의시설 확충,
깨끗한 화장실

학교와 집 이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어딘가요?

1위 학원 (496명)

2위 PC방 (310명)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1위 진로 (602명)

2위 학업 (354명)

2위 친구관계 (114명)

방과후 좀 더 재미있게 지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1위 놀이공간 및 휴식시설 (294명)

돈이 많이 필요없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곳
뛰어놀 수 있는 곳 (청소년 놀이터)

2위 프로그램 (96명)

다양한 동아리 활동
체험활동 및 축제
봉사활동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뭔가요?

#응원해요

“늘 힘내시고 파이팅하세요”
“사랑해요”
“건강 잘 챙기세요”
“철 없는 자식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또는 사람, 어머니로서 너무 존경하고 파이팅! 사랑해요”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담배는 싫어요

“담배냄새 싫어요, 길에서 담배 피지 말아주세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예요

“공부 강요하지 마세요”
“공부 못해도 화내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주시고 존중해주세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with you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은평교육복지센터

은평구

은평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은평돌봄연대)

신나는애프터센터

은평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은평구평생학습관

은평혁신교육지원단

2016 은평혁신교육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발행처 은평혁신교육지원단
발행인 이미경
발행일 2017년 1월 30일
편집 반나무
디자인 권순미디자인

03470 서울 은평구 가좌로6길 20 서울응암초등학교 별관 3층
02-3152-5522
www.epsmiletown.com